교육연합신문

2026년 4월 8일 (수) **제441호** (창간 2009년 1월 22일)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서울교육청, 유보통합 예산 확보 ▶5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4월 3일 '올해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격차 완화에 나섰다.

기업탐방-케이원에코텍(주) ▶7면

생존수영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영장과 같은 고위험 환경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화순교육지원청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 ▶13면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장 안착과 운영 내실화…

"전남광주교육통합 핵심은 일자리 창출"

김대중 전남교육감, '교육-일자리' 선순환 구축·상향 평준화된 교육 환경 조성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3월초부터 현재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통합 준비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행정·재정·조직 등 통합에 필요한 전반을 총괄한다.

현재 광주시교육청 통합준비단과 함께 주 1회 정기 협의를 갖고, 핵심 과제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교육부의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과 협력,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 정원 문제 등 주요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특히, 6월까지 조직·정원, 인사, 재정,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 핵심 과제를 마무리해 행정적 기틀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NEIS, K-에듀파인 등 주요 시스템을 일원화해 특별시교육청 개청 과정에서 단 한 건의 행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교육정책 역시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속도보다 안정', '불이익 제로'이다. 통합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직원의 업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인사·복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두 차례의 시도민 공청회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통합 과정에서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시도민의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555명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 비전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3월 26일 출범했다. 학부모·학생·시민단체 등 각 계각층 55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50개의 핵심 과제를 발굴,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조직 결합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교육자치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교육행정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우리 전남광주교육통합이 시도 간 통합의 첫 사례인 만큼,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통합의 가장 큰 변화는 배움이 곧 지역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지역에 취업·정주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훌륭한 인재를 찾아 전남·광주에 터를 잡고, 이는 다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이것이 바로 '교육-일자리'의 선순환이다. 우리 지역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이에 걸맞은 특별시 교육 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전남은 '글로컬 교육', 광주는 '다양한 실력'을 강점으로 키워왔다. 이제 두 지역의 강점을 결합하면, 학생들의 배움의 무대는 넓어지고, 성장 기회는 더 커질 것이다. 또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공동수업 확대, 캠퍼스형 고교 모델 도입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도 한층 확대된다. 에너지영재학교, AI 특화 마이스터고 등 신산업과 연계된 교육 기반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로도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예산 활용에 최우선 가치는 어느 지역에 살든 '최고 수준의 균등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특별시 교육체제가 갖춰지면 예산, 교원정책, 교육과정 등 전반에서 지원이 확대되고, 이는 전남·광주 교육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수도권과의 격차뿐 아니라 광주-전남, 도심-농산어촌, 신도심-원도심 간 지역 안에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한 곳이 있다. 이처럼 교육 소외 지역에 예산과 인력을 우선 집중 배치해 우리 지역 교육력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교육감 권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자치 실현에 필요한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동안에는 교원 정원, 교육재정, 교육과정 등 핵심 영역에서 자율성이 제한돼 왔다. 이번 통합을 계기로 조직·정원, 재정, 교육과정, 학교 설립 등 주요 분야에서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이유다.

사실 교육감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교직원 단체와의 협약, 학부모협의회, 교육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견제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

또한, 이번 법률에 교육장 공모제가 명시된 점도 의미 있게 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미 영암교육지원청을 공모제로 운영하며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권한을 최대한 이양하는 방식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고,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특별시교육청 출범 이후에는 이러한 공모제가 더욱 발전해 권한 분산과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합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막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통합은 전남·광주교육이 서울특별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김대중 교육감은 "특별법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는 시행령과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의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촘촘히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서울교육청 "용산 신청사 시대, 청렴도 1등급 목표"

정근식 교육감 "지난해 첫 2등급 달성… 시민 신뢰·만족하는 서울교육 만들 것"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4월 1일 '2026년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를 '용산 신청사 시대, 청렴 문화 원년'으로 삼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85.7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초로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2022년부터 4년 동안 이어진 3등급의 한계를 돌파한 것으로, 종합청렴도와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모든 영역에서 역대 최고점을 경신한 성과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용산 신청사 이전을 조직 문화 쇄신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부패제로·존중 일상-신뢰로 하나되는 서울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종합청렴도 1등급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청렴 추진체계 고도화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소통·존중 문화 정착으로 내부체감도 제고 ▲청렴 문화 안착 및 일상적 실천 확산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2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핵심추진과제 이행성과' 정성평가 지표에 맞춰 2건의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학교운동부 청렴 운영 체계 구축'이다. 모바일 불법찬조금 신고망을 연중 운영하고 서울학교체육 포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간 소통 간담회를 정례화한다. 교육감 명의의 불법찬조금 근절 서한도 발송한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조직 내 갑질행위 근절 체계 내실화'다. 카카오톡 기반의 비대면 갑질예방 안내 봇을 새로 개통하고 주요 갑질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관리자 대상 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교육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청렴 소통'도 정례화한다. 교육감과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라이브' 행사를 유튜브로 동시 중계하며, 신청사에서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새 공간·새 문화' 청렴 선서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에는 기존 행사에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는 '청렴·존중 5분 캠페인' 자료를 배포한다. QR코드 기반의 '청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모든 학교에 제공하되, 실적 보고 의무 없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 해 첫 2등급 달성은 출발점일 뿐이다"라며 "용산 신청사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청렴 문화를 뿌리내려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공교육 중심·적정 난이도 유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교육 중심의 출제 기조를 재확인했다.

평가원은 3월 31일 발표를 통해 2027학년도 수능을 오는 11월 19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능은 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학습과 EBS 교재 및 강의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출제 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된다. 동시에 교육부의 '수능 출제 체계 개선안'을 반영해 난이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시험 종료 이후에는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계획이다.

EBS 연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간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재에 포함된 지문, 도표, 그림 등의 자료를 활용해 체감도를 높이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약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험생 적응을 돕기 위한 모의평가는 6월과 9월 두 차례 실시된다. 특히 한국사 영역은 필수 과목으로 유지되며, 변별보다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 이해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된다.

시험 구조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운영되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평가 방식에서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한국사와 탐구 영역의 경우 답안지가 분리 제공되며, 이에 대한 안내자료는 3월 말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제와 시행 전반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오규 기자 hog@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

"기초가 탄탄해야 배움이 성장합니다"

서울형 기초학력

교실 안 수업 중에 바로 잡아주는 촘촘한 배움
- AI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 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는 맞춤형 피드백
- 협력강사 밀착 지원: 수업 중 발생하는 학습 결손 예방

학교 안 학교가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지원
- '키다리쌤'이 소규모 통합 지원: 심리-정서적 상담, 문화예술 활동, 진로 체험
- 심층진단 집중학년제 운영: 난독(초1) 난산(초3)-경계선지능(중1,고1)

학교 밖 전문기관과 연계한 원스톱(One-stop) 케어
- 서울학습진단 성장센터 운영: 11개 지역 센터에서 학습 저해 요인 진단-지원
- 학습성장 네트워크 구성: 대학 및 전문기관과 협력, 내실 있는 진단-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가 책임 강화해야”

교육감協, 특별교부금 전환에 지방교육재정 부담 우려… 재원 구조 재설계 요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최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재원 전환과 관련해 31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재원 구조 변경 움직임에 대해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해당 사업이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 추진해 온 국가 주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의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고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시도교육청 부담이 확대되는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특별교부금 교부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재정 운영 계획을 왜곡시키고 필수 교육사업 투자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운영방식 재설계와 예산 분담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지역 문화예술 인재와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대표적인 융합 정책임을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부처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協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미래세대의 문화예술 역량을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

목포교육지원청,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목포용해초,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등교맞이 행사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현)은 지난 3월 31일 오전 8시, 목포용해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등교맞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신학기 초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교육장을 비롯해 SPO 학교전담경찰관, 학교종합지원센터 생활인권팀이 함께 참여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참여자들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서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공감하는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을 넘어, 학교폭력 예방은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목포교육지원청 박재현 교육장은 “학교폭력은 발생 이후의 조치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2580news@daum.net

社 說

10분도 버거운 긴 글 읽기, ‘숏폼’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10분 이상의 글 읽기에 고통을 느낀다는 통계는 우리 교육 현장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 뇌가 짧고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긴 호흡의 글을 읽는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집중력 저하의 주범은 일상화된 숏폼 콘텐츠다. 설문 응답자의 78.4%가 시청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습관적으로 앱을 켠다고 답했다.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수동적인 자극에 익숙해질수록,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해야 하는 텍스트 읽기는 뇌에 과도한 피로감을 주게 된다.

결국 수능 지문이나 교과서 같은 고차원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퇴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정보 습득의 매체가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시각도 있다.

짧고 효율적인 영상 콘텐츠가 정보 전달의 핵심이 된 세상에서, 과거의 방식인 긴 글 읽기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영상 매체가 주는 파편화된 지식은 사고의 깊이를 담보하지 못한다. 학업 성취도와 논리적 사고력의 핵심은 긴 텍스트 속에서 맥락을 파악하고 핵심 정보를 도출해내는 능력에 있다.

영상에만 의존하는 뇌는 복잡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거나 추론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는 곧 지적 성장의 한계로 직결된다.

따라서 이제는 학생 개인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 ‘디지털 디톡스’와 ‘심층 독서’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공부 시간만큼이라도 스마트폰을 격리하고, 신문 기사나 단행본 등 긴 글을 끝까지 완독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 문해력은 미래 경쟁력의 근간이며, 그 근간은 숏폼의 자극이 아닌 텍스트를 향한 인내심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본희 詩選

뽀샵하는 사회

언제부턴가
아름다움도 만들어졌다.
사실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 현실 속에서 ㅡ

마법 거울은 물는다.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
모두 백설공주 되어
나만의 만족을 좇는다.

왜곡된 옷을 입은 진실도
조용히 비틀리고,
모두 획일화된다.

진짜 나를 잃어간다.

꾸밈이 기본 예의인
이 사회 속에서 ㅡ

사진 속 얼굴도,
화장 뒤 표정도,
오늘 우리는 가면을 쓴다.

▣ 구본희
◇ 前인천국제고등학교 교장

전남교육청, AI 기반 미래 진로교육 전환 속도 낸다

교육과정 연계·글로컬 신산업 창업체험 등 학생주도 진로 역량 강화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4월 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 AI 산업 확대와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응해, 진로교육 구조 전환에 나섰다.

단순 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2026 진로교육 콘퍼런스’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로교육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핵심 방향은 ▲학교 교육과정 기반 진로교육 내실화 ▲학생 맞춤형 진로 성장 프로그램 확대 ▲교원 진로교육 역량 강화 등이다.

먼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초6·중3·고1 등 ‘진로전환기’를 중심으로 진로 탐색과 상담을 집중 지원하고,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 속에서 진로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중등 ‘진로와 직업’ 과목과 진로전담교사의 상담을 통해 학생 개별 진로 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 맞춤형 진로 성장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22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해 학교와 지역 체험처를 연결하고, 단순 견학이 아닌 여러 차시에 걸쳐 운영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컬 신산업 창업체험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AI 설계, 시제품 제작, 발표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기술, 신재생에너지, 미래농업 등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자료와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교원 역량 강화도 중요한 축이다. 진로전담교사 네트워크를 권역별로 운영하고, 연수와 콘퍼런스, 연구대회를 통해 진로교육과 상담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인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는 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180여 명이 참석해 변화된 진로교육 방향과 현장 적용 전략을 공유했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학생 7,259명 함께 ‘공생의 길 프로젝트’

전남교육청, 552개 팀 선정 생태 탐구·환경 실천 활동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4월1일부터 전남 학생 7,259명이 참여하는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 552개 팀을 선정해 지역 생태 탐구와 환경 실천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지역의 산, 하천, 습지, 갯벌 등을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보호하는 전남교육청의 대표 환경교육 모델이다. 기후위기 시대, 공생의 가치를 배우고 지속가능한 생태시민역량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으며, 올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3년 155팀에서 시작해 2024년 300팀, 2025년 354팀, 2026년 552팀 참여로 확대되며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다. 참여 학생들은 팀별로 지역 생태계 이해, 환경 보호 실천, 지역사회 협업 활동을 수행하며 생태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올해도 ‘영산강 유역 수질 개선’ 중점 과제와 일반 탐구 과제를 병행해 운영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력해 이뤄지는 중점 과제는 ▲전문가 멘토링 ▲현장 강의 ▲수질 개선 체험 키트 제공 등을 통해 전문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전남교육청은 4월 담당 교사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 상징 캐릭터 공모전, 공생 실천 브이로그 공모전, 학생 환경 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편집인 한승균
우 135-95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306호(충무로 4가)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서울본부 1899-0954
인천본부 032-429-1000 충북지사 043-292-0779 영남본부 054-273-3336
대전지사 1666-0536 울산지사 052-276-0904 호남본부 0505-629-3366
전북지사 063-226-0119 부산지사 051-711-1444 제주지사 1522-1160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민석 예비후보, 대체교사 통합 인력풀 구축

경기도서 유치원 관계자들과 간담회… "인력 공백 문제 교육청 책임 체계로 전환해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4월 3일 경기도에서 유치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체교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인력풀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안 예비후보는 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단법인 경기도유치원연합회(이사장 송기문)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치원 현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교사 경조사나 질병 등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개별 유치원이 대체 인력을 직접 구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은 인력풀을 통해 대응이 가능한 반면 사립 유치원은 지원에서 배제돼 공사립 간 인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안 예비후보는 "교사 한 명이 빠지면 교육이 멈추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며 "대체 인력 문제는 개별 기관이 아닌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기관별 자율에 맡겨진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수업 운영이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유치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초·중등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며,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대체교사 통합 인력풀을 구축해 긴급 상황 시 즉시 투입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등을 아우르는 통합 인력 체계를 구축해 공사립 간 인력 대응 격차를 줄이고 교사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민석 예비후보는 "어디를 선택하든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

케이시스, 3대 기술로 LED 전광판 시장 공략

'202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 K-디스플레이 경쟁력 확산 속도

LED 전광판 전문기업 (주)케이시스(대표 천병민)가 '202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공공조달 시장을 겨냥한 LED 전광판 기술 전략을 3월 31일 제시했다.

국내 최대 공공조달 전시회인 이번 행사에서 케이시스는 공공기관 환경에 최적화된 LED 전광판 기술을 선보이며 수요기관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설치 효율과 운영 안정성, 활용 확장성을 중심으로 한 3대 기술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전시에서는 전광판 내부 구조를 개선한 무선 LED 캐비닛과 이동성과 활용성을 강화한 유·무선 배너형 제품, 그리고 다양한 영상 환경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케이시스 AV 스위쳐'가 공개됐다.

기존 케이블 구조를 단순화한 와이어리스(Wireless) 설계는 설치 공정을 간소화하고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배너형 제품은 고정형 중심의 기존 전광판 활용 범위를 확장했다.

또한 AV 스위쳐는 케이시스 LED 전광판과의 호환성을 높여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자회사 엘루다코리아도 전시에 참여해 SMD 및 GOB 기술 기반 LED 전광판과 기상청 정식승인 센서가 적용된 기상전광판을 선보이며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공공기관 환경에 맞춘 다양한 제품군을 동시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케이시스는 국내 유일의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기업으로, LED 모듈부터 조립, 검사까지 전 공정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요구되는 품질 기준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제주 등 전국 6개 직영 거점을 통해 도입 상담부터 설치, 유지보수까지 직접 수행하는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케이시스가 단순 제품 공급을 넘어 설치 구조와 운영 효율, 유지관리까지 포함한 통합 LED 전광판 솔루션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안정성, 운영 효율, 국산화 기반의 공급 체계를 동시에 반영한 기술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케이시스는 향후 공공기관 환경에 맞춘 LED 전광판 제품군을 지속 확대하며 조달시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조달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K-디스플레이 경쟁력 확산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손영욱 기자 syw@

김문수 의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 '돌봄위탁' 법안 발의

아이돌봄서비스 도입으로 원가정 내 보호 강화·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은 3월 27일 국회에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가정과 분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아동학대가 1년에 2회 이상 신고되거나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정과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 조치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가정법원 판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보호하고, 원가정 내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학대 재발 징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김문수 의원은 "원가정과 분리가 어렵거나 아동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황에 맞는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학대를 예방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김홍제의 목요칼럼

교실 안의 네잎클로버 찾기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노력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찾고 기대하고 찾아낸다. 네잎클로버는 그 작은 성과를 상징한다. 네잎클로버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네잎클로버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희귀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찾아냈기 때문'일 것이다. 네잎클로버는 단순한 행운의 상징이 아니다. '발견하려는 의지'에 대한 작은 보상이다.

토끼풀을 '클로버'라고 부른다. 토끼풀 이름 유래는 3가지다. 토끼가 즐겨 먹기 때문이라는 것과 잎이 토끼 발자국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하얀 꽃봉오리가 토끼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네잎클로버는 세잎클로버의 돌연변이로 10만 개 중 하나 정도로 생긴다고 한다. 혹자는 네잎클로버(행운)를 찾으려고 세잎클로버(행복)를 무심히 지나치는 어리석음을 비유로 말하기도 한다. '비정상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정상성'을 하찮게 여기는 셈이다. 정말로 행운은 희귀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일까?

> "모든 학생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능성은 단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다."

행운을 행복으로 바꾸는 비법은 간단하다. 행운의 네 잎에서 욕심이라는 잎 하나를 버리면 된다. 하나 덜어내는 순간 행복의 세 잎 클로버가 된다. 사람들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세잎클로버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잎클로버는 우리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이다.

중고등학교 교실을 떠올리면 이런 풍경이 연상된다. 비슷한 시간표, 비슷한 시험과 평가. 이 안에서 학생들은 종종 '세잎클로버'처럼 보인다. 각자 다른 생각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제도와 기준 속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정렬한다.

학교는 평범한 '세잎클로버' 속에서 '네잎클로버'를 찾는 공간이기도 하다. 교실에는 성적이 뛰어난 학생, 특정 재능이 두드러진 학생, 혹은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발견하고 기록하고 그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발굴'이나 '육성'이라고 부른다.

교실 안에서 네잎클로버를 찾는 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하게 정해진 틀에 맞춰진 뛰어난 학생을 골라내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네잎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열어두느냐에 있다.

교육이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소수의 '네잎'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 각자가 자신의 형태를 이해하고 확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 모든 학생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능성은 단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다. 교실 안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네잎'이 있다. 다만 아직 그것을 '네잎'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을 뿐이다. '네잎을 찾는 일'은 스치듯 지나치면 실패한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

▣ 김홍제
◇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나주상업고, 청소년 노벨캠프 우수상 수상

국어 수업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성과

나주상업고등학교(교장 이동훈)는 전남 청소년 노벨캠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노벨캠프에서 나주상업고 송유정, 반현도, 박지혜, 이수진 학생(지도교사 이동규)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로컬 임팩트랩'팀은 전체 지원 학교 중 상위 20개 팀에 선정돼어 활동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후 상위 10개 팀에 진출하여 우수과제 발표 심사에 참여했다. 능주고, 해룡고, 전남과학고 등과 경쟁한 발표심사에서 유일한 특성화고 진출 팀으로서 최종 우수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참가 학생들은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전라남도 인재증서를 수여받아 그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학교의 국어 수업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 나주상업고는 국어 교과의 글쓰기, 논리적 구성 역량을 창체 프로젝트와 연계해, 학생들이 학술적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까지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해 왔다.

고기정 기자 2580news@daum.net

“소년사법 둘러싼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국가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관련 성명 발표… 처벌보다 예방 중심 시스템 구축해야

최근 촉법소년 상한연령(형사책임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둘러싼 공론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3월 31일 성명을 통해 “연령 하향 정책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소년범죄 증가와 저연령화, 흉포화 등의 주장이 실제 통계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부 지표만으로 ‘소년범죄 급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을 과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0여 년간 소년범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 추세를 보였으며, 범죄의 주된 연령대 역시 여전히 16~18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13세 저연령 범죄는 장기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고, 소년범죄의 대부분은 절도 등 비교적 경미한 유형이 차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일부 기간 특정 연령대에서 증가한 사례를 전체 구조적 변화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인구 구조, 신고·적발 관행, 범죄 유형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진다는 근거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에서도 형사책임 연령을 낮춘 이후 재범 증가와 교육 단절 등 부작용이 나타나 다시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경우가 확인된 바 있다.

인권위는 “아동을 조기에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낙인 효과와 사회적 배제를 초래해 오히려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촉법소년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보호관찰,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소년원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무엇보다 소년범죄의 근본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곤과 불평등, 가정 해체, 방임과 학대, 교육 및 지역사회 안전망의 부족, 정신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년범죄 대응의 핵심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돌봄·교육·복지·정신건강 지원 등 예방 중심의 사회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 기준 역시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높은 연령을 채택한 국가가 이를 낮추지 말 것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연령 하향은 국제 인권 기준과 소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아동의 회복과 재사회화를 중심으로 한 소년사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인권위는 “아동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고 성장할 권리를 가진 존재”라며, “이번 공론화가 단순한 처벌 강화 논의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돌봄·복지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언 기자 bse@

광양중진초, 이주배경가정 학부모와의 소통의 장

이주배경가정 학부모 22명 초청 ‘만남의 날’ 운영… 효과적 지원 방안 모색

광양중진초등학교(이하 광양중진초, 교장 박윤자)는 3월 26일 이주배경가정 학부모 22명을 초청해 ‘이주배경가정 학부모 만남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이주배경학생들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만남의 자리를 통해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안내 △학부모회와 연계한 이주배경가정 지원 프로그램 구안 △이주배경가정 학부모의 교육봉사 참여 독려 △광양시가족센터 연계 맞춤형 교육서비스 안내 △학부모 질의응답 및 자녀 상담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해 광양중진초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주배경학생 지원사업 파트너로 학교와 협업하고 있는 광양시가족센터 관계자 2명도 본 행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베트남 출신 학부모는 “이주배경 학부모로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부모로서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았지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담임선생님과 면담도 하고,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이주배경 학부모는 “광양에 거주하며 다른 나라에서 온 엄마들과 만남의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저처럼 가정 내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광양중진초 박윤자 교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 이주배경가정 학부모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전하며, “학교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이주배경 학부모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그들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광양중진초는 교육부 요청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로서 2차 연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주배경학생의 학습역량과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언어교육 내실화와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컬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서옥란 기자 2580news@daum.net

영화의전당 들락날락, 아동 체험 프로그램 강사풀 모집

영화·예술체험 분야 20명

영화의전당 들락날락은 5세~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사풀 모집에 나선다. 4월 3일부터 24일까지 영화체험과 예술체험 프로그램 두 분야에서 총 20명의 강사를 모집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강사풀 모집은 분야별 전문 강사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들락날락을 이용하는 아동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보호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모집을 통해 검증된 강사를 확보하고, 강사 제안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장도 함께 추진한다. 모집 분야는 ▲영화체험 프로그램(10명)과 ▲예술체험 프로그램(10명)으로 구성된다.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관련 자격증 및 강사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등) 소지자로 하며, 아동(5~10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자를 우대한다.

황오규 기자 hog@

와이앤아처, ‘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사업’ 성과공유회

은퇴 체육인 창업 지원 사례 공유… 하승진 전 농구선수 ‘아쿠아 플라즈마’ 계획 발표 눈길

와이앤아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는 ‘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열린 ‘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사업 성과공유회’에는 창업지원 분야 참여자와 관계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창업보육과정 참여자뿐만 아니라 교육·점검과정 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창업 준비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넓히는 자리로 진행됐다.

와이앤아처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해 체육인 직업안정사업의 창업지원 운영을 맡고 있다. 은퇴 체육인과 체육계 종사자들이 보유한 경험과 전문성을 새로운 창업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 단순 교육을 넘어 ▲사업 아이템 구체화 ▲시장성 점검 ▲사업계획 고도화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 준비 등 창업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점검과정에 참여 중인 전 프로야구(롯데·SK·기아) 선수 출신 조경환 대표의 특강에 이어, 창업지원 참여자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실제 창업 준비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극복 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며 현장감을 더했다.

특히 창업보육과정에 참여 중인 하승진 전 농구선수는 ‘아쿠아 플라즈마’ 사업 계획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하승진 선수는 “사업화 지원금과 1:1 멘토링을 통해 특허 출원과 시제품 제작 등 창업 초기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나와 같은 은퇴 체육인의 도전이 동료들에게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와이앤아처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체육인 창업지원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창업보육과정과 교육·점검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참여자의 사업 준비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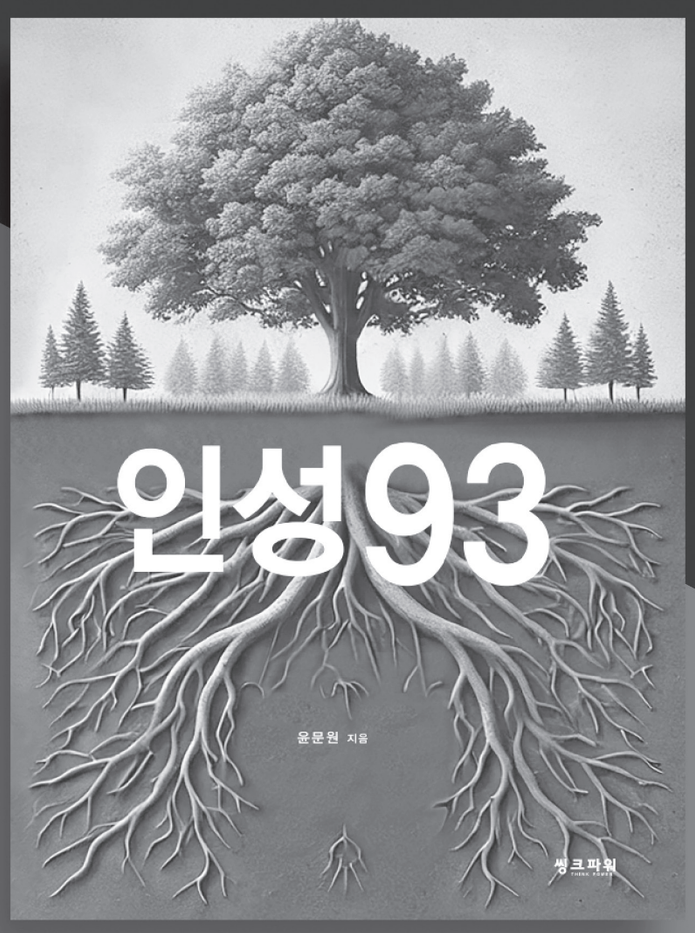
와이앤아처 정혜민 팀장은 “체육인은 선수 생활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 몰입도, 실행력을 바탕으로 창업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체육공단과 함께 체육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더 많은 체육인이 창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와이앤아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육인 직업안정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창업지원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인복지지원포털 스포웰(https://spowell.ksp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영 기자 juy@

93가지 인성 덕목을 담은
삶의 지침서

인성교재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저자 윤문원
인성교육전문가
중·고교과서 다수게재

출판사 : 씽크파워 (440p) 정가 : 24,000원
쿠팡,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등 전국서점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가능

단체구입문의 : 010-7401-9855 유기성 본부장
(학교도서관및 공공기관 도서구입관련)

인성교육진흥법관련조항제11조 :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및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한다.
제15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지원,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야한다.

세계를 품는 글로컬 보성교육 실현

보성교육지원청, 교육발전특구 추진 맞춤형 컨설팅

전남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범)은 4월 2일 오후 2시 보성교육지원청 기획협의실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교육모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컨설팅은 서원대학교 이동수 교수가 컨설턴트로 참여해 ▲교육발전특구 추진의 전반적인 개요 ▲지자체 협력모델 구축방안 ▲교육발전특구의 현장안착 방안 등 실질적인 사례와 전략을 제시했다.

함께 참석한 보성군청 교육발전특구 담당부서와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요소를 점검하고, 보성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성교육지원청 장학사 손○○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업무추진 과정에서 가졌던 의문점과 궁금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서 가졌던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다.

보성교육지원청 김호범 교육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모델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성만의 특색 있는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두수 기자 2580news@daum.net

서울교육청, 유보통합 사업 예산 133억 확보

교사·영유아 비율 1대 13 초과 시설 지원 등 영유아 교육·보육 격차 완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4월 3일 '올해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격차 완화에 나섰다.

이번 기본계획은 교육부의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맞춰 시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을 확대하고 실행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133억 4000만 원을 확보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시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업 확대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자원맵'을 구축한다. 자원맵은 교육청, 지자체, 민간이 운영하는 교육·보육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이와 함께 영유아 안심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함께하는 안전교육'을 중점 추진한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100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며 기관 간 안전 교육 격차를 줄인다. 함께하는 안전교육은 전문 기관과 협업해 뮤지컬, 체험 부스 등 문화예술과 연계한 콘텐츠를 8회에 걸쳐 약 1600명에게 제공한다.

지난 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사업들도 지속된다.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1대 13을 초과하는 3세 464학급(반)에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유치원과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835개 기관에 안심 교육·돌봄 환경 조성비로 1개 기관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오감 활용 책놀이 꾸러미 보급, 교사와 학부모 연수,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영유아 독서교육 내실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질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남부교육지원청, 'K-POP 댄스 아카데미' 운영

다문화 학생 통합 지원 강화… 문화예술 기반 학교 적응력 향상 기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은 3월 27일 SK브로드밴드 및 LOVE FNC와 협력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K-POP 댄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과 또래 관계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 필요성에 대응해 마련됐다. 학생 간 상호이해 증진과 또래 관계 형성 지원, 언어·문화 장벽 완화를 통한 학교 적응력 향상, 정서적 안정과 자기표현 기회 확대를 통한 전인적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구로·금천·영등포구는 서울시 이주배경학생의 약 29%가 재학 중인 다문화 밀집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관내 초등학교 4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수업은 3월부터 연말까지 학교별 일정에 맞춰 주 1회, 학기당 16회로 진행된다. LOVE FNC 소속 전문 안무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K-POP 댄스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K-POP이라는 친숙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신체 활동과 예술적 표현을 경험하고, 언어를 넘어 '춤'이라는 공통의 방식으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환용 교육장은 "K-POP 아카데미가 학생들이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재능을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남부교육지원청, 신학기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유관기관 협력 스쿨존 사고 예방 강화… 학생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은 지난 3월 31일 서울 금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신학기 맞이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교육지원청은 스쿨존 내 교통안전 의식 확산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 주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을 점검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현장에는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학교 교직원, 학생 자치회, 구청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등교 시간에 맞춰 통학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계도 활동을 펼쳤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단 횡단 금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수칙을 집중 안내했다. 또한 비 오는 날에도 시인성이 높은 보행안전 키링과 교통안전 가방덮개를 배부해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을 얻었다.

정환용 교육장은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로 하겠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구청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합동 점검과 통학로 안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북부교육지원청–북부여성발전센터, 업무협약

학교 대체인력 채용지원 협력 강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은 3월 30일 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학교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센터장 방미영)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상시 발생하는 대체인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채용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인력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채용 공고 및 정보 공유 ▲인력풀 모집 홍보 및 구직자 신청 지원 ▲구직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기타 상호 협력 사업 등 4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 내 유능한 여성 인력을 발굴해 학교 현장과 연계함으로써 교육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교육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태식 교육장은 "이번 협약이 학교 현장의 대체인력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교육기록원 2033년 문 연다

정근식 교육감 "기록물 체계적 보존… 열린 행정 구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4월 1일 서울교육 역사가 담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학생과 시민이 교육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공유할 수 있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가칭)서울교육기록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립 추진은 매년 증가하는 중요 기록물의 보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분산 관리되던 기록물을 통합 운영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기록물 훼손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폐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박물과 기록물에 대한 전문적인 보존·복원 업무도 전담하게 된다.

서울교육기록원은 단순한 보존 시설을 넘어 VR(가상현실) 및 AR(증강현실)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록관(Archive)과 박물관(Museum)이 결합된 '아키비움(Archivum)' 형태의 공간으로 구축해 시민들이 서울교육 발자취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문성과 예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직속 기관 형태로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8일 '서울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오는 2027년 타당성 검토와 공간 확보를 거쳐 2033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서울교육기록원 설립은 서고에 잠들어 있던 서울교육의 소중한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학생과 시민 누구나 과거와 현재의 교육 현장을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투명한 기록 관리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교육 공동체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결:틔움' 기반 조기 발굴·심리정서 지원 확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창수)은 지난 3월 30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2026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지역이 연계된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과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수립됐다.

특히 학생 개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며, 정책 브랜드를 '결:틔움'으로 정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살리는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학교 지원 체계 강화이다.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지원 대상 학생의 조기 발굴과 정책 수립·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와 지원단을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컨설팅·사례회의를 통해 현장 밀착 지원을 확대한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실행 지원이다. '결:틔움 현장 지원 패키지'를 신설해 회의 지원, 맞춤형 컨설팅,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합 제공한다.

아울러 '결:틔움 마음성장' 사업을 통해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공모와 운영 공유회를 통해 현장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사례 확산에 나선다.

김병선 기자 kbs@

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여건 개선

단기 대체 교사 지원 확대·역량 강화 연수 운영 현장 밀착형 통합지원 본격 나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4월 3일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달 마련한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방안' 실행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지원방안은 현장 밀착형 지원을 목표로 ▲단기 대체 교사 지원 범위 확대 및 복지 향상 ▲현장·실천 중심 사립유치원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사립유치원 원장 대상 경기미래장학 리더십 연수 진행 ▲도교육청-직속기관 연계 통합지원책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우선 4월 1일부터 단기 대체 교사 지원 범위를 기존 공가 및 특별휴가 등에서 '일반 병가'까지 확대했다.

또한 출산휴가 지원 일수를 기존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려 교원의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이어진다.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사립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인사·복무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원을 위한 인사제도 안내와 복무 사용 등 실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오는 4월 17일에는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민주적 리더십 및 현장 중심 소통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한다. 경기미래장학에 기반한 민주적 유치원 경영과 자율장학 실행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직속기관과 협업한 지원책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은 저경력 사립유치원 교사를 위한 '유·초등 교사 적응기 교직실무 연수'를 개설해 업무 경감을 돕는다.

경기도교육청북부·남부유아체험교육원은 '교사 마음성장 연수'를 운영해 교원의 정서 심리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힘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지원방안 실행을 통해 사립유치원 교원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교사가 유아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경기교육청, 현장 의견 수렴 유보통합 실행력 높인다

2026년 제1차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자문위원회 열고 정책 협의 본격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월 31일 남부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자문위원회'를 열고 정책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유보통합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여해 ▲지난해 유보통합 주요 추진성과 ▲올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본 계획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과 보육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지원 정책을 확대해 통합 실행 기반을 마련한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올해는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 통합 준비에 집중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다.

장애 영유아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현장 지원을 확대해 교육 기회를 넓히고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유보통합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중심으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지방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

도교육청은 현장자문위원회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안산교육지원청, 안산 루트 캡스톤디자인 교원 역량 강화

특성화고 6교 70여 명 교원 참석 워크숍 운영… 학교 현장 적용 방안 공유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은 3월 2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안산교육지원청 한마음홀에서 '2026 안산 루트 캡스톤디자인 운영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안산 루트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인 캡스톤디자인 운영을 지원하고, 교원의 교육과정 설계 및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특성화고 6교에서 70여 명의 교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보통교과와 전공교과 등 다양한 교과 교원이 함께 참여해 캡스톤디자인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캡스톤디자인은 안산이 중점 육성하고 있는 AI·로봇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캡스톤디자인을 ▲산업체와 협력하여 실제 과제를 수행하는 산학연계형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연계형 ▲보통교과와 전공교과를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교과융합형으로 운영하여,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체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일산컨벤션고등학교 문은경 부장이 '캡스톤디자인의 이해와 운영 실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수업 모델의 특징과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 방안,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캡스톤디자인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AI·로봇 산업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며 "산·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업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ssm@

성남교육지원청,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지원이(G-ONE)' 활용 교육

생성형 AI·협업 도구 적용 행정 업무 효율성 향상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양수)은 4월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지원이(G-ONE)' 사용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업무협업포털 '지원이(G-ONE)'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교육은 '지원이(G-ONE)' 플랫폼 내 화상회의 기능인 '지원이(G-ONE) 미팅'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원이(G-ONE)'의 기능을 보다 현실감 있게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주요 내용으로 △업무협업포털 서비스 안내 △생성형 AI를 활용한 질의응답 및 문서 초안(평가계획서) 생성 시연 △메신저, 미팅, 일정 등 협업 도구 활용법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한, 디지털 스마트 업무 환경 확대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보보호(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교육을 자체적으로 병행해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한양수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맞추어 직원들이 생성형 AI와 디지털 협업 도구를 업무에 적극 활용해 교육행정의 혁신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미래형 교육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보안정책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ssm@

안산교육지원청, 교실 밖 배움의 확장

'2026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힘찬 출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은 지난 3월 21일 '인성 공유학교' 개강을 시작으로 '2026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는 경기공유학교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을 학교 밖으로 확장하는 지역 기반 학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인성 공유학교는 전통문화와 예절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진로·인성·창의 역량을 함께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인성 캠프'는 높은 호응을 얻은 가운데, 전통 먹거리, 공예, 놀이, 예절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유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학교와 가정을 잇는 인성교육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인성 공유학교에 참여한 초등학생은 "평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공유학교에서 함께 떡을 만들면서 더 친해진 느낌이에요. 배우는 것도 재미있고,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도 알게 됐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6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는 인성 공유학교를 시작으로 문화·예술, 체육, 진로, 생태·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이 차례로 개설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경기공유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산시와 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경기공유학교 홈페이지 https://gong-u.goe.go.kr)

신상민 기자 ssm@

경기교육청, 맞춤형 경제·금융교육

초·중·고 학생 발달 단계 맞춘 체험·실천 중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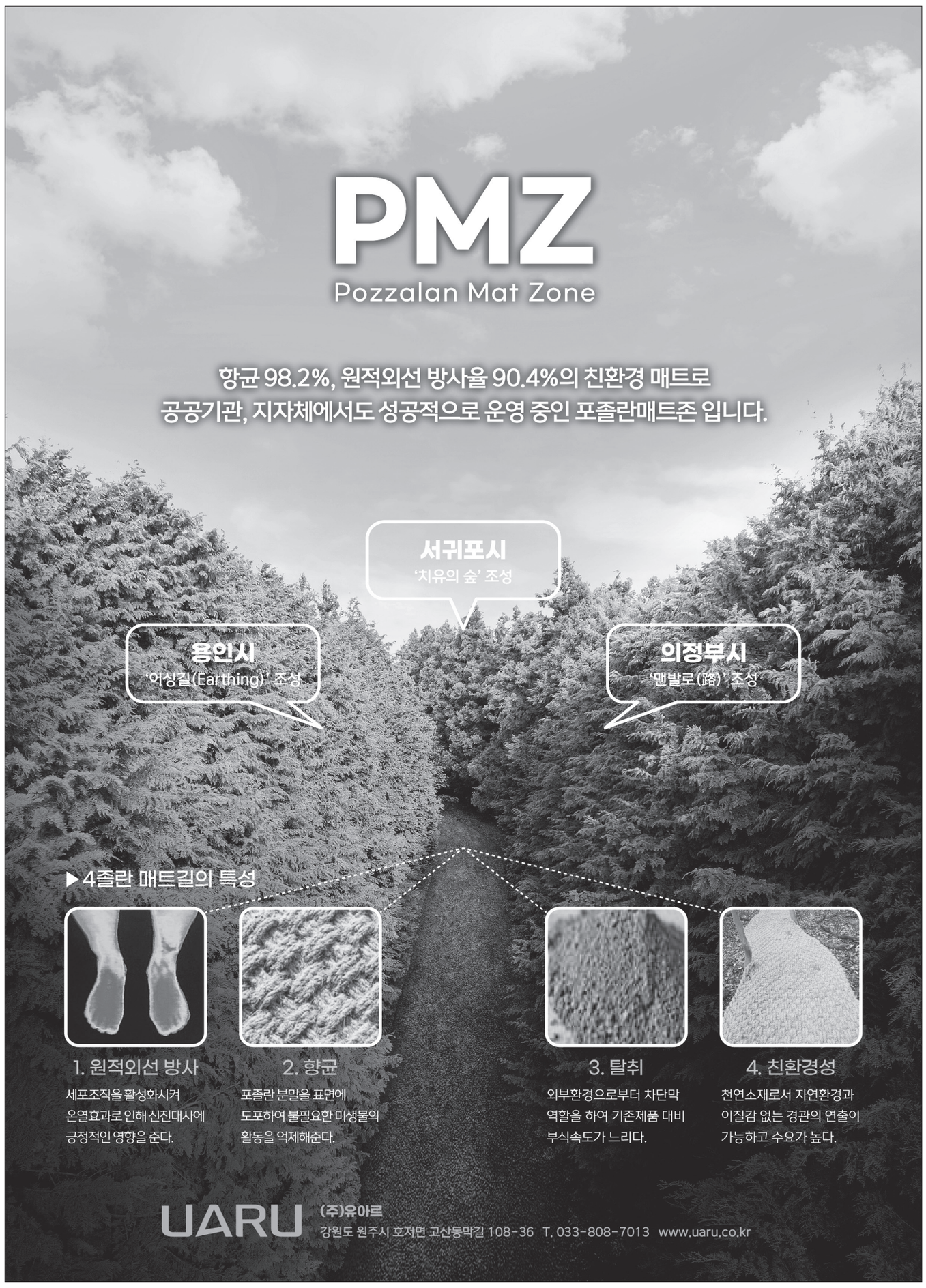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합리적인 경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학교급별 맞춤형 경제·금융교육'을 강화한다고 지난 3월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는 다양한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경제·금융교육 교수·학습 자료집 제작·보급 ▲찾아가는 금융교육 ▲금융사기 예방교육 ▲체험형 금융 뮤지컬 ▲금융교육 연구학교 운영 등이다

'경제·금융교육 교수학습 자료집'은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제·금융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올바른 금융 가치관 형성, 중학교는 생활 금융이해, 고등학교는 자산관리와 금융 의사결정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민간 기관과 협력해 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제 경제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의 기본 개념 이해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금융사기 예방 교육'은 사회 진출을 앞둔 고 3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인터넷 금융사기 등 청년층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금융 범죄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신상민 기자 ssm@



케이원에코텍(주) "AI로 생명을 지키는 기술"

생존수영 안전관리 해법 제시… 기술 기반 예방형 안전관리 시대 선도하는 안전 플랫폼 기업

기업탐방

생존수영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영장과 같은 고위험 환경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사고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새로운 안전관리 방식이 교육 현장에 도입되며 주목받고 있다.

케이원에코텍(주) 김종학 대표는 수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AI와 ICT를 융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존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다.

한강 뚝섬공원에 설치된 케이원에코텍의 여과기. 자료:케이원에코텍

케이원에코텍은 2006년 설립된 수처리 전문기업으로, 깨끗한 물 공급과 수자원 절감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이어왔다. 특히 ▲수처리 여과기 ▲이동식 정수 장치 ▲ICT 기반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축적하며 산업 기반을 다져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다.

핵심 기술인 '튜브형 프리코팅 여과기'는 ▲0.5㎛ 이상 미세 오염물질 제거 ▲정밀 공극 제어 여과 구조 ▲장기 운용이 가능한 역세척 시스템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등의 강점을 갖추고 있으며, 조달청 혁신제품 및 우수제품 동시 인증(국내 최초)을 획득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케이원에코텍은 여과 기술에 ICT를 접목해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모바일 기반 원격 관리, IoT 센서 연동 안전 경보, 지능형 자동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며 스마트 안전관리 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해당 기술은 수영장 환경으로 확장되며 생존수영 안전관리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AI 영상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익수 위험 감지 ▲이상 행동 분석 ▲움직임 정지 상태 인식 ▲실시간 경고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했다.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고 이전 예방"의 철학은 기존 '사고 발생 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종학 대표는 "안전은 더 이상 사람의 경험이나 감각에만 의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특히 생존수영 교육이 이루어지는 수영장은 사고 발생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AI 기반 예방형 안전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원에코텍은 수처리 기술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안전 기술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원에코텍은 광주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 시흥 MTV 웨이브파크, 양주시 서부권 스포츠센터 등 100여 개 이상의 현장에 기술을 적용하며 실증 기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술은 ▲생존수영 교육 ▲학교 체육시설 ▲공공 수영장 ▲수경시설 ▲스마트시티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 김종학
- ◇ 케이원에코텍(주) 대표이사
-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특허청장상 수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수상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수상
- ◇ 대한민국 독도홍보대상 수상

케이원에코텍은 단순한 수처리 기업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안전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우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생존수영 교육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안전관리 방식 역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케이원에코텍이 제시하는 AI 기반 안전관리 기술은 향후 교육 안전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영 기자 juy@

행복나눔재단, 시각장애 아동 솔루션 선봬

'CSUN ATC 2026' 세션 발표… 점자 학습 장난감 소개

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은 세계 최대 보조공학 콘퍼런스 'CSUN ATC 2026'에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학습 장난감 '슬라이닷(Slidot)'과 점자 학습지 '점프(JUMP)'를 세션 발표 및 부스 운영을 통해 소개했다.

'CSUN ATC'는 보조공학 기술 분야의 최대 규모 콘퍼런스로, 매년 약 5000명의 연구자·실무자·사용자들이 참여해 접근성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41회 행사에서 행복나눔재단은 시각장애 아동의 점자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선보였다.

먼저 슬라이닷의 소개는 'From Boring to Playful: A Toy Solution for Braille Practice(지루함에서 즐거움으로: 점자 학습을 위한 장난감 솔루션)'를 제목으로 하는 세션 발표를 통해 이뤄졌다. 발표에서는 점자 학습이 반복적이고 지루해 아동의 학습 동기를 저하시킨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이를 놀이처럼 즐겁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설계 방향과 효과를 공유했다.

슬라이닷은 점자 문제카드를 스마트폰에 태그하면 안내 음성이 재생되고, 아동이 점자를 읽은 뒤 키보드로 정답을 입력하는 퀴즈 게임 방식의 학습 장난감이다. 브릭과 중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제작 비용을 낮추면서도 실용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난이도의 콘텐츠와 흥미를 돋우는 음성 피드백을 탑재해 아동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시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테스트 결과도 함께 공유했다. 사용 전에는 점자 자율 학습 경험이 전무했던 아동들이 슬라이닷을 활용한 4~6개월간 매주 3~4일, 하루 평균 17분씩 스스로 점자를 연습하는 변화를 보였다. 또한, 저비용 구조 덕분에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도입 가능한 솔루션임을 강조했다. 발표를 청취한 시각장애 교육 지원기관 관계자와 교사들은 실제 교육 현장 적용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행복나눔재단은 공식 세션 발표와 함께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슬라이닷과 점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부스를 찾은 점자 교육 실무자와 시각장애 당사자들은 두 솔루션을 직접 체험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행복나눔재단은 이번 CSUN 참가를 계기로 현지 파트너 및 수요자와의 접점을 넓히며 글로벌 확산 가능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유연 기자 lyy@

대한노인회 부산연합회, 제22대 박종수 회장 취임

박종수 신임회장 "봉사의 리더십으로 어르신 중심 사회 구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산연합회는 지난 4월 2일 오후 3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22대 박종수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주진우 부산시장 예비후보, 허남식 신라대학교 총장, 이대석 부산시의회 부의장, 윤태한 복지환경위원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대한노인회 중앙회 이석현 상임부회장, 김철수 부회장, 고성진 서울연합회장, 이종익 대구연합회장, 정경영 광주연합회장, 양재경 경북연합회장, 김인수 제주연합회장, 이영권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신정택 자문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은 경헌중협예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등록증 수여, 취임 선서,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이석현 대한노인회 중앙회 상임부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대석 부산시의회 부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석현 상임부회장은 "박종수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 훌륭한 인품을 두루 갖춘 박 회장이 부산연합회를 이끌며 대한노인회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박종수 회장과 부산연합회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있어 든든한 파트너"라며,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대석 부의장은 "39년간 공직에서 시민을 위해 헌신해 온 경험은 부산연합회를 이끄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의회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재생 회장은 "행정과 지역사회, 경제 분야를 두루 경험한 박 회장의 리더십은 부산연합회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어르신 복지 향상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박종수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의 취임은 개인의 영광이 아닌 봉사의 시작"이라며, "항상 낮은 자세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로 뛰는 겸손한 리더십으로 부산연합회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역할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기 내 핵심 과제로 '경로당 활성화'를 제시하며 "경로당을 단순한 쉼터를 넘어 문화·여가·건강이 결합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고,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경로당 모델을 도입해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창녕 출신인 박종수 회장은 마산고등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39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부산시 부산진구·금정구 부구청장, 행정자치국장, 교통국장 등을 역임했다.

공직 퇴임 이후에는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부산대학교 석좌교수 등을 지내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부산도심철도 이전 추진위원회 등에서도 활동했다.

또한 대한노인회 부산연합회 부회장과 노인지도자대학장을 역임하며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역량을 발휘해 왔다.

이종근 회장으로부터 등록증을 전달받은 박종수 회장은 "정관과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부산연합회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황오규 기자 hog@

조달청 우수제품 | 성능인증 | 1등급 GS인증 1등급 | 녹색기술인증 | 환경표지인증 | 산업융합혁신품목 | 우수발명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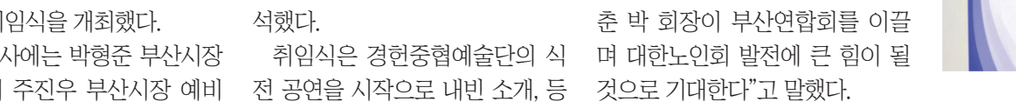
APEC 2025 정상회의장 LED 전광판 구축 기업

실내 LED 전광판 | 옥외 LED 전광판 | LED 전자현수막 | 스탠드 LED 전광판

전국 초·중·고 구축 건수 1위

주식회사 케이시스

국내 유일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 기업 | 케이시스 스마트 자동화 공장


SMT라인 | 아웃도어 라인 | 어셈블리 라인 | 에이징룸

조달청 LED 전광판 계약 · 납품 · 구축 건수 3년 연속 1위

국내 최초 안내전광판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관공서·학교 '전국 1,600건 이상 구축'
140종 이상의 빛나는 '수상·인증·특허' 보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계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NOVASTAR 글로벌 컨트롤러 '노바스타 공식 전략적 기술 파트너'

세일고등학교 2층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대강당
여의도고등학교 입구
북원여자고등학교 입구
용인 대지초등학교 옥외
장성백암중학교 옥외
망미초등학교 본관 입구
사송초등학교 본관 입구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
학산여자고등학교 강당
대전대성여자중학교 실내 스탠드전광판
사직여자고등학교 LED배너

국무총리상 표창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 정부 조달청장 표창 | 산업융합선도 기업 표창 | 녹색인증 유공포상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제품

KSYS www.ksys.co.kr

[전국 및 글로벌 지사 · 공장 · 물류]

부 산 |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17 더케이타워 1F~6F
서 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411호
대 전 | 대전 유성구 복용동로 43 도안더리브시그니처 749호
광 주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힐IBC지식산업센터 A동 1301-B호
제 주 | 제주시 서문로 33
미 국 | 732 S 6TH ST, STE R, Las Vegas, NV 89101, USA
공 장 |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9 (모라동) 백양스마트밸리 B1, 1F, 5F, 6F
부산 물류센터 | 부산 남구 문현로 13-1 케이시스 물류창고
서울 물류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B110호

제품문의 1600 - 6187

“진보 단일화 의혹, 야합 넘어선 반헌법적 폭거”

인천교육감 이현준 캠프 김수진 대변인, 공식 성명서 통해 강한 비판

이현준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임병구 교육감 예비후보가 주도해 온 지난 8년의 교육 행태를 ‘교육계의 밀실 계엄’으로 규정하고, 헌법의 이름으로 강력히 심판하겠다고 4월 1일 밝혔다.

이현준 캠프 김수진 대변인은 이날 공식 성명서를 통해 “지난 8년, 교육의 본질이 살아 숨 쉬어야 할 교실은 특정 이념의 실험장으로 전락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편향된 세력의 기득권 유지 도구로 쓰였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교육감 선거 단일화 약속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변인은 “이는 단순한 권력 나눠 먹기식의 ‘밀실 야합’을 넘어, 인천 교육의 자유와 다양성을 폭력적으로 통제하고 압살해 온 ‘교육계의 밀실 계엄’”이라고 직격하며, “권력 연장을 위해 교육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 끔찍한 행태는 시민을 기만하는 것을 넘어 헌법 정신을 짓밟는 중대한 반헌법적 폭거”라고 맹폭했다.

캠프 측은 전날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대중 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이 촉구한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발언과 관련해서도 전적인 공조의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대중 의원의 주목할 만한 울림은 8년을 인내해 온 우리 시민들의 억눌린 목소리”라며, “설명하지 않는 권력은 신뢰를 잃는다는 김 의원의 뼈아픈 지적처럼, 이들은 추악한 의혹 앞에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이어 도성훈 체제의 정책 실패도 조준했다. 성명서는 “이른바 ‘시민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교실을 정치화의 장으로 전락시켰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선생님들은 무너진 교권 속에 홀로 방치했다”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파괴한 책임이 도성훈 체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김수진 대변인은 “이제 헌법이 이들의 반교육적 야합, 그 끔찍했던 ‘밀실 계엄’의 시대를 심판할 것”이라며, “이현준 캠프는 무너진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상식적인 목소리와 연대해, 헌법 정신에 기반한 이념 없는 ‘진짜 교육’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송명초, 지역사회 연계 미래 첨단 인재·세계 시민 양성

인천반도체고등학교 및 인천화교소학교와 릴레이 업무협약 체결

인천송명초등학교(교장 최은미)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로 거듭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육기관들과 잇따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3월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교과서 밖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고, 지역을 넘어 세계로 시야를 넓히는 ‘살아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24일, 인천반도체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천송명초등학교-인천반도체고등학교 진로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첨단 인프라 체험을 4월 9일 6학년 학생 전체가 인천반도체고등학교 내 ‘반도체융합교육센터’를 방문해서 학생들은 첨단 실습실을 견학하고 진로 멘토링을 받게 된다. 전문 교구를 활용해 반도체 원리를 나만의 반도체 작품으로 직접 구현해 보는 실습도 진행돼는데 이 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이 미래 공학자를 꿈꾸는 특별한 경험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3월 25일, 인천화교소학교와 국제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해 다문화 감수성과 글로벌 리더십 함양에 나선다.

4월 7일에는 상호 방문의 날로 정해 화교소학교 학생들이 송명초를 방문했고, 5월 12일에는 송명초 5학년 학생들이 화교소학교를 방문해 대만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며 우애를 다진다.

아울러 온라인 교류를 통해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패들렛(Padlet)과 줌(Zoom)을 활용해 일상과 문화를 공유하고 디지털 문해력을 함께 키워나갈 계획이다.

최은미 교장은 “이번 협약들은 학생들이 교과서 속 지식을 넘어 첨단 기술의 현장과 다양한 문화를 생생하게 목격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경험하며 꿈을 설계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개흥초, 꿈과 끼 키우는 ‘과학축제’ 개최

전 학년 대상 8개 첨단 ICT 및 소프트웨어 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천개흥초등학교(교장 임웅수)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동안 교실 및 특별실에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2026 개흥 과학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학년별 발달 단계를 고려해 3일간 운영했는데, ▲3월 30일에는 3, 4학년 ▲3월 31일에는 1, 2학년 ▲4월 1일에는 5, 6학년이 각각 주인공이 돼 다채로운 과학의 세계를 탐험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총 8개의 첨단 ICT 및 소프트웨어 활동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교실과 강당, 과학실, 지능형과학실, 컴퓨터실 등을 순회하며 코딩블록, SW코딩, 3D펜, 드론, 엠타이니, IT스포츠, AR/VR, 코딩드론 등 다채로운 체험에 참여했다.

특히, 지능형과학실에서 직접 코딩한 명령어로 드론을 조종해 본 한 학생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드론과 코딩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직접 해보니 재밌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임웅수 교장은 “이번 과학축제가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능형과학실 등 최신 교육 환경을 적극 활용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송림초 농구부, 전국 최강 전력 입증

전국대회 제패 이어 홍콩과 국제교류 활동

인천송림초등학교(교장 주경일) 농구부는 지난 1월 31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1회 한국초등학교농구연맹전’에서 남초부 정상에 오르며 전국 최강의 전력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에서 송림초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며, 3대3 농구 부문에서도 3위를 차지하는 등 고른 기량을 과시했다.

개인 시상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농구부 주장 김서진 학생이 남초부 최우수상을 거머쥐었으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류현태 감독과 최경훈 코치는 지도자상을 수상하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주경일 교장은 “학생 선수들의 땀방울과 지도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지난 3월 30일에는 인천송림초에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했다. 홍콩의 ‘Good Counsel Catholic Primary School’ 소속 학생 36명과 지도교사 5명이 국제교류 활동을 위해 학교를 찾은 것이다.

이번 방문은 양국 학생들의 우호 증진과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홍콩 학생들은 송림초 학생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

K-예절 수업으로 한국 전통 절하기와 다도 체험을 통한 예절 배우기를 접하고, 전통놀이 한마당으로 제기차기, 투호 등 한국 고유의 민속놀이 체험 했으며, 급식 문화 체험으로 한국 초등학교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급식 식단 등을 경험하며 홍콩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주경일 인천송림초 교장은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넓은 시야를 가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해든초, 실생활 중심 경제금융교육

올바른 경제관 형성·합리적 소비 습관 함양

인천해든초등학교(교장 김명옥)는 지난 3월 18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경제관 형성과 합리적인 소비 습관 함양을 위한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융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화폐의 가치, 저축의 필요성, 합리적인 소비 방법 등 기초적인 경제 개념을 배우며 금융에 대한 기본 소양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냈으며, 모의 소비 활동과 용돈 관리 계획 세우기 등 실생활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올바른 소비 습관과 건전한 경제 의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 인천해든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용섭 기자 ays@

IB 교육 지원체계 강화로 일반학교로 확산

대전교육청, IB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단 1차 협의회 개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일 시교육청 별관에서 '2026학년도 IB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단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지원단 전원이 참석해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의 안정적 지원 방향과 역할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현장 컨설팅 운영 방식, 학교 요청 기반 컨설팅 방안, 수업·평가·교육과정 등 컨설팅 영역 설정, 학교 지원 자료 개발 방향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특히 IB 운영 학교 교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수 부족, 수업과 평가 연계, 교육과정 운영 협의 시간 확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IB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단은 한다.

또한 운영 학교 도움 자료와 일반 학교 IB 이해 확산 자료를 개발해 현장 업무 경감 및 프로그램 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현장 사례 소개 및 실무 실습 중심의 연수와 워크숍, IB 학교 운영 단계별 로드맵 및 필수 업무 이행 절차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IB식 평가 구현 방안도 함께 연구해 일반 학교로의 IB 프로그램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정책과 김용옥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IB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단의 역할과 지원 체계가 더욱 정교해지고, 현장 교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본격 가동

신탄중앙중·대전대화중 시작으로 융합적 진로탐색의 장 열어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은 지난 2025년 12월 1일 개원 이후 시범 운영과 준비 과정을 거쳐, 4월 1일 신탄중앙중학교와 대전대화중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시작으로 진로 체험 '꿈자람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운영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꿈자람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대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교육원 내 마련된 6개 진로체험마을(문화예술, 영상미디어, 웰빙복지, 바이오환경, AI미래, 창업경영)의 12개 진로체험실을 기반으로, 단순 견학에서 벗어난 활동 중심의 전문적인 체험을 제공한다.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은 학교별 신청을 받아 운영하면서 대상 학년과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등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춘 개선책을 발빠르게 마련하며, 일선 학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프로그램 첫날인 4월 1일 오전에는 신탄중앙중학교, 오후에는 대전대화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XR 스튜디오, 홈네트워크, 자율주행, 유전공학 등 첨단 장비와 미래형 콘텐츠가 어우러진 융합적 진로 체험에 몰입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체험에 참여한 신탄중앙중학교 학생은 "XR 스튜디오에서 가상 공간 속 화성 기지를 탐사하고, 직접 설계한 알고리즘으로 자율주행차를 움직여보며 미래 기술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실감했다"며, "막연했던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들을 인솔한 대전대화중학교 교사는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전문 장비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현장의 필요를 세심하게 반영해 준 덕분에 더욱 알찬 체험이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한,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은 현재 운영 중인 '꿈자람 프로그램'에서 한 단계 나아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 심화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상반기 체험을 토대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더욱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교육원 내 6개 진로체험마을의 특색을 살린 심화 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연계 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정선희 원장은 "꿈자람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세상 속의 다양한 가능성을 직접 체감하며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진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교육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우현호 기자 whh@

대전교육청,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현장 지원 가동

노벨탐구활동 학교 지원 설명회 및 노벨꿈키움과학실 구축·운영 설명회

대전시교육청은 3월부터 4월까지 2026년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노벨 과학교육 지원단 협의회', '노벨 탐구 활동 학교 지원 설명회', '노벨 꿈키움 과학실 구축·운영 설명회'를 개최하며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의 현장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노벨 과학교육 지원단은 '노벨 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과학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 교원 25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 3월 23일 협의회를 열어 2026년 현장 지원 방향과 주요 추진 내용을 논의했다.

'노벨 탐구 활동 학교 지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기초과학 중심의 다양한 탐구·체험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적 탐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총 62개 학교(초 13교, 중 24교, 고 23교, 특 2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노벨 탐구 활동 학교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안내와 더불어 대덕특구 연계 프로그램 자료 공유, 노벨 과학교육 지원단과 대상 학교 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노벨 꿈키움 과학실 구축·운영'은 2025년부터 과학 수업의 혁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미래형 과학실 조성 사업으로, 올해는 초 16교, 중 20교, 고·특수 12교 등 총 48개 학교가 참여한다.

2일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절차 안내뿐만 아니라 노벨과학교육 지원단의 과학실 구축 사례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과학직업정보과 김영진 과장은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는 대전의 미래 과학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확대하고,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 문화를 더욱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대전교육청, 다양성 속에서 미래 인재 육성의 길 찾다

초·중·고·특수학교장 300여 명 대상 다문화교육 학교관리자 역량강화 연수

대전시교육청은 4월 3일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 블랙박스홀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장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다문화 교육 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이주 배경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관리자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오전(초등·특수)과 오후(중·고)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연수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강에서는 '학교장이 알아야 할 다문화 교육의 실제'를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관리자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동·서부 다문화 교육 센터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지원'과 '통·번역 서비스' 등 주요 사업을 안내하며, 학교 현장에서 이주 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등교육과 강의창 과장은 "모든 아이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장의 포용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존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무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대전교육청, 1분기 유아학비 172억 지원

대전 지역 공·사립유치원 222개원 유아 대상

대전시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 222개원(공립 94개원, 사립 128개원) 17,370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1분기 유아학비 171억 7천 8백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유아학비는 소득 수준과 국적에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을 포함하여 공립 월 15만원, 사립 월 35만원이다.

기존에 3~5세 유아에게 추가 지원되던 월 5만원의 유아학비는 2026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받는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bokjiro.go.kr)을 통해 유아학비로 지원 자격을 변경 신청해야 한다.

우현호 기자 whh@

드론농구(DRONE BASKET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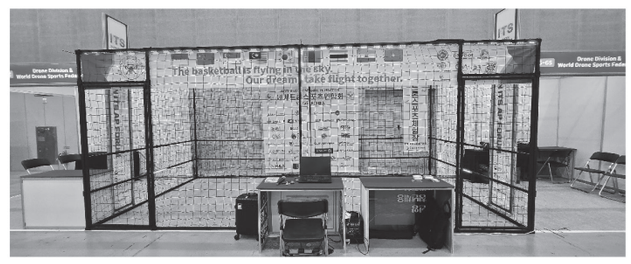
WORLD DRONE SPORTS FEDERATION
WDSF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

하늘 위의 드론스포츠 "드론 농구"
DRONE BASKETBALL:
A SPORT IN THE SKY

경기 규정 (RULE)

- 팀 구성: 3명의 선수
  - 각 팀 3명으로 구성
  - 실시간 동시 조종
  - 역할 분담 전략 중요
- 경기 시간: 총 3쿼터
  - 쿼터당 2분 진행
  - 쿼터 사이 2분 휴식
  - 작전타임 90초
- 공격 제한 시간
  - 24초 이내 득점
  - 시도 실패 시 공격권 전환
  - 빠른 판단 필요
- 득점 인정 조건
  - 드론의 골대 1/2 이상 통과
  - 위에서 아래로 진입해야 함
- 자동득점 시스템
  - 정확한 점수 측정
  - 실시간 스코어 업데이트
  - 공정성 확보

2025 WDSF KOREA
글로벌 드론스포츠 국제대회
GLOBAL DRONE SPORTS COMPETITION
일 시 : 2025. 8. 9 - 8. 10
장 소 : 청주 OSCO 2 HALL



The Future of Aerial Sports Starts with WDSF 하늘 위 스포츠의 미래, WDSF에서 시작된다
WDSF KOREA 글로벌 드론스포츠 국제대회 GLOBAL DRONE SPORTS COMPETITION
일시 [illegible] 장소 청주 OSCO 2 HALL 주최 : WDSF 주관 : DRONE DIVISION Skybot 후원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대학교 중북문화재단 OSCO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
(WORLD DRONE SPORTS FEDERATION)

전화 +82)10-5080-9116, -
이메일 : wdsf9116@naver.com)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drone_sports

WDSF
Woo Hyunho Drone

문의 : 010.3398.7325
010.5204.8271

LINK ON
주식회사 베스트링크

S2B 물품번호
2025 0131 055 1212
2025 0131 055 1061
2025 0131 055 0333

최고의 장비와 최저의 비용,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차별화된 행사를 약속 드립니다”

음향
- 이벤트 음향
- 소형 음향
- 중형 음향
- 대형 음향

조명
- 이벤트 조명
- 중소형 무대조명
- 대형조명

무대
- 이벤트 무대
- 소형 무대
- 중형 무대
- 대형 무대

영상
- 빔 프로젝터
- LED 영상
- 촬영 및 중계

급식관계자 폐암 예방부터 일터 복귀까지 지원

부산교육청, 전국 최고수준 폐암 검진 시행… 1인당 10만 원 이내 진료비에 지원인력 배치

부산시교육청이 급식관계자들의 폐질환 예방과 건강한 일터 복귀 지원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팔을 걷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급식관계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지원을 위한 '급식관계자 폐질환 예방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폐암 예방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한 일터 복귀를 지원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급식관계자의 체계적인 폐질환 예방과 사후관리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폐질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지난 2024년 전국 최초로 '급식관계자 폐암 정기검진'을 시행했다.

올해 역시 실비 전액을 지원하는 '1·2차 검진'과 3백만 원 내 실비를 지원하는 '3차 검진'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폐암 검진제도를 운영한다. 검진 결과 '폐암 매우 의심자', '폐암 확진자'의 분기별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진단서만으로 승인했던 '질병휴직'은 진단서와 소견서 동시 제출 시 소견서의 치료기간 기준으로 휴직을 허가한다. 근로자에게 충분한 건강 회복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폐암 확진자의 치료 후 건강한 일터 복귀 지원에도 나선다. 폐암 치료 후 복직 예정인 급식관계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업무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사 소견을 듣고, 안전한 복귀와 조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 이내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또, 근로자의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복직자 소속 학교에 최대 3개월간 업무 지원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한다.

이에 따라 복직자는 최대 3개월간 가열 조리 제외 등 업무를 조정받을 수 있다.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마무리 시점까지 폐암 확진자·완치자 대상 '전보특례제도'도 운영한다. 환기설비 개선 완료 학교 등에 우선 전보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방침이다.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실 환기설비와 작업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급식실 환기설비 단독 개선은 올해 여름방학까지 마무리한다.

또한, 현장에서 환기설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후 현장 교육도 강화해 나간다. 급식관계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유해 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한 '자동화 및 전기식 조리 기구' 지원도 확대한다. '자동교반솥'은 지난해 17교에서 올해 28교로 지원을 대폭 늘린데 이어, 현장 만족도가 높았던 '조리 로봇'도 올해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계획 시행으로 우리 교육청은 급식관계자 건강 보호와 일터 복귀, 근무 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ljh@

대한적십자사 전국협의회, '준비된 봉사' 현장서 빛나

정기총회·재난통신경진대회 중 즉각 출동 대전 화재 현장 600명 급식 지원

대한적십자사 재난대응봉사회가 대형 화재 현장에서 보여준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응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평소 재난 대비 훈련과 체계를 기반으로 한 '준비된 봉사'가 실제 재난 현장에서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대한적십자사 재난대응봉사회 전국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지난 3월 21일 부산 강서구 가락중학교(폐교)와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서 '제39차 전국협의회 정기총회'와 '제13회 재난통신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4개 지사 소속 재난대응봉사원 약 200명이 참석해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행사 기간 중 실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훈련과 현실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3월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대전지사 재난대응봉사회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송선호 회장을 비롯해 고대영 부회장, 권혁일 총무, 이홍규, 심현수, 김덕기, 김옥선 등 7명의 봉사원들은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현장 지원에 나섰다.

■ "현장은 전쟁터… 준비된 봉사가 사람을 살린다"

화재 현장은 짙은 연기와 고열로 가득한 긴박한 상황이었다. 소방대원들은 장시간 진화 작업에 투입됐고, 경찰과 감식 요원, 지자체 관계자들 역시 밤샘 대응을 이어갔다. 이때 현장을 지탱한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재난대응봉사원들이었다. 이들은 급식차량을 신속히 투입해 이틀 동안 약 600명에 달하는 현장 인력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한 봉사원은 "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며, "뜨거운 국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고 말했다.

■ "행사보다 현장이 먼저"… 재난 대응의 본질 입증

이번 활동은 전국 단위 행사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한다. 전국 14개 지사 200여 명이 참여한 대형 행사 중에도 대전지사는 '현장 우선 원칙'을 선택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김진섭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대전 화재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봉사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며, "재난대응봉사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 "재난통신은 생명선"… 실전 대응 역량 강화

함께 열린 '재난통신경진대회'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통신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능력을 겨루는 실전형 대회다.

재난 현장에서 통신 지연은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통신 역량은 재난 대응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 대구지사 ▲최우수상 강원지사 ▲우수상 울산지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지역사회와 함께 만든 '재난대응 연대'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더욱 의미를 더했다. 부산지사 구정회 회장이 1일차 만찬을 준비했으며, 부산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가 기념품을 지원하고, 봉사회 부산시협의회가 2일차 간식을 후원하며 행사와 현장을 함께 뒷받침했다.

재난대응봉사회의 역할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선다. 특히, 이번 대전 화재 현장은 "재난 대응은 평소의 준비와 현장의 헌신이 결합될 때 완성된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대한적십자사 재난대응봉사회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이고 끝까지 현장을 지키는 '준비된 봉사 조직'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윤영 기자 juy@

부산 강서초, 에코델타시티 교육 거점으로 힘찬 출발

교육공동체 함께한 개교식… 존중·배려 기반 학교문화 조성 다짐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새로운 교육 거점인 강서초등학교(교장 신동현)가 4월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교육공동체의 축하 속에 개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최경이 북부교육지원청장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강서초등학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중앙현관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샌드아트 공연, 학교 비전과 교육활동을 소개하는 영상 상영, 교육감이 교장과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에게 교기를 전달하는 교기 전달식 등 다채롭게 진행되며 개교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강서초등학교만의 특색 프로그램인 '학교문화 책임규약 선포식'에서는 학생·학부모·교사 대표가 함께 무대에 올라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공동 낭독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신동현 강서초 교장은 "이번 개교식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인이 돼 소속감과 자부심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ljh@

부산디지털고, 전자부사관과 견장 수여식

육·해·공군 모병관 참여… 직접 견장 수여 사명감 고취

부산디지털고등학교(교장 김시영)는 지난 4월 2일 오전 10시 50분, 교내 강당에서 2026학년도 전자부사관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부사관 선서 및 견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 군 간부로 성장할 신입생들에게 부사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육·해·공군 각 군 모병관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각 군 모병관이 신입생들에게 직접 견장을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를 전해 행사에 깊은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임명장 수여와 견장 수여를 시작으로, 부사관 선서, 교장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부사관으로서의 자세와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선서식에서는 학생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책임감 있는 군 간부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학교 관계자는 "육·해·공군 모병관이 함께한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큰 자부심과 목표의식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한 부사관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디지털고등학교 전자부사관과는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군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매년 우수한 부사관을 배출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pes@

부산항공고 기숙사 증축공사 착공

부산북부교육지원청, 2027년 9월 완공 204억 투입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이)는 부산 사상구 부산항공고등학교(교장 문상대)에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항공 인력 육성을 위한 기숙사 증축 공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항공고는 특성화고 체제 개편의 하나로 옛 서부산공고를 부산형 마이스터고로 전환해 지역 정주에 기반을 둔 항공 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24년 3월에 개교한 바 있다.

그동안 부산항공고에는 기숙사가 없어 학생들이 인근 신라대 기숙사를 사용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기숙사 증축으로 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이 가능해져, 항공분야 훈련 및 교육시간 확보로 항공 기술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숙사는 총 204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지상 8층 연면적 6,081㎡ 규모로 건립되며, 2027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3월 착공했다. 다목적실, 정독실, 학생휴게공간, 사감실, 침실(2인 1실) 등 학생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갖췄다.

북부교육지원청은 기숙사 공사 중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해 전담 감독하도록 했으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 및 안전조치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기자 ljh@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 북부분원 설립 추진

유아교육 균형 발전·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2030년 3월 개원 목표 통합 체험 환경 조성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유아교육진흥원(원장 박연숙)은 3일 오후 2시 30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가칭)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을 위한 '북부분원 프로그램 구축 TF팀 협의회'를 개최했다.

(가칭)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은 충북 북부권 유아교육의 균형 발전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충주시 주덕중학교 부지에 설립을 추진 중인 유아교육 거점 기관으로, 203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체험·놀이 중심 교육과 교원 연수,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과정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유치원 교원, 교육지원청 장학사, 진흥원 파견교사 등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북부분원 설립 비전 및 정책 방향 공유 ▲설립·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행 중심 운영 전략 자문 ▲체험터별 역할 분담 및 추진 일정 협의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공간과 연계한 체험·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 발달 특성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통합 체험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유아교육진흥원은 TF팀 협의를 바탕으로 기획·설계·검증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시범 적용을 거쳐 북부분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연숙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북부분원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충북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용성과 포용성을 갖춘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기성 기자 ygs@

공교육 기반 미술 진로·진학 지원 체계 구축

충주시 미술 진로·진학단, 1:1 맞춤형 컨설팅 등 미대 입시설명회 운영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를 거점으로 한 '충주시 미술 진로·진학단'이 3일 충주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국원고등학교에서 미술대학 입시설명회를 운영했다.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국원고, 중앙탑고, 충주고 미술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충주시 미술 진로·진학단'은 공교육 기반의 미술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고등학교가 연합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교육 안에서 체계적으로 미술 진로·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진로·진학단 교사들이 학생부종합전형 중심의 미대 입시 전략과 학교 교육과정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프로젝트와 1:1 맞춤형 컨설팅 등 향후 운영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1차 설명회를 통해 입시 전문가를 초청해 미술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대 입시 변화와 준비 방향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충주고 명승현 학생은 "막연하게 느껴졌던 미술 입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 직접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더욱 신뢰가 갔다"라고 말했다.

충주시 미술 진로·진학단 부대표 박문규(중앙탑고) 교사는 "이번 설명회는 지역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Art&Port 프로젝트, 실기 프로그램, 1:1 컨설팅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 미술 진로·진학단은 지역 고등학교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공교육 중심의 지속 가능한 미술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유기성 기자 ygs@

단양 학부모와 진로·진학 해법 모색

충북교육청, 대입지원 전문가들과 지원 방안 논의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3일 오전 10시 30분, 단양교육지원청에서 단양 지역 초·중·고 학부모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진로·진학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등학교 학부모뿐 아니라 초·중학교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 자녀 진로에 대한 조기 준비 필요성과 진로·진학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농촌 지역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진로교육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도교육청 대입지원 전문가들과 진로·진학 정책과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1교 1진로상담교사 배치와 대입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입지원단은 고등학생뿐 아니라 초·중학생까지 상담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진로·진학 지원의 일환으로, 단양 지역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1박 2일 숙박형 진로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아이들이 사는 곳이 기회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도록, 지역과 환경의 차이를 넘어 스스로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진로·진학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유기성 기자 ygs@

초·중·고 학생 다양한 문화 배우고 이해 높인다

충북 국제교육원,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함더함' 89기 규모 운영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국제교육원(원장 서강석)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도내 초·중·고 학생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함더함'을 총 89기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함더함'은 '다같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함께 어울리는 문화 형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학교 신청을 받아 대상 학교 선정을 완료했으며, 다문화교육 전시체험관과 연계한 센터 방문형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으로 진행되고 4월부터 12월까지 주 3일(수·목·금) 운영된다.

센터 방문형 프로그램은 1일 50명 내외 규모로 운영되며, 사이버 다문화체험관 활용 교육, 전시체험관 견학, 세계 문화 체험 활동 등 체험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다.

학교 방문형 프로그램은 다문화 교육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2~3차시 수업으로 진행되며, 다문화 이해교육과 문화다양성 존중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학생들은 '다문화 탐험대' 활동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문화와 가치관을 배우고, 전시체험관과 사이버 콘텐츠를 활용한 참여형 수업에 참여한다.

지난해 몽골에 이어 올해는 베트남을 주제 국가로 선정해 의식주 문화 체험, 기초 인사말 배우기, 전통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정 국가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학습 몰입도를 높이고, 문화 간 공통점과 차이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서강석 국제교육원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은 서로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출발점"이라며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현장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우수 인재 안정적 확보 기반 마련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바이오플러스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한석일)는 2일 바이오플러스㈜(대표이사 정현규)와 바이오플러스㈜ 회의실에서 인재 육성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산현장 견학 ▲인턴십 및 현장실습 ▲산업체 전문 기술 강사 특강 ▲바이오제약 기업맞춤반 운영 ▲연구개발 및 제조 분야 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바이오플러스㈜는 2025년 충북 음성 성본산단 내 '바이오컴플렉스' 공장 준공을 계기로 바이오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의학·바이오헬스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석일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장은"이번 협약은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중원교육문화원, 학부모 심리적 회복 지원

학부모성장지원센터, 6기 학부모 상담프로그램 운영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중원교육문화원(원장 신기철) 학부모성장지원센터(이음터)는 도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상담프로그램'을 총 6기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해 건강한 가정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5월 1기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운영되며, 기수별 20명 내외의 학부모를 선발한다.

1기는 3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신청은 구글폼(https://forms.gle/WemVeC4dXB8d3sW37)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자는 1차 추첨(1.5배수)과 2차 전화 면담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학부모는 5월 한 달 동안 총 4회(회당 1시간)의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상담은 ▲MMPI, SCT, TAT 등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주요 고민 및 호소 문제 탐색 ▲문제 해결 방안 실행 및 결과 분석 ▲상담 종결 및 지속 여부 결정 등 단계별 과정으로 운영된다.

충주 학부모성장지원센터와 청주 충청상담교육연구소에서 진행되며, 주 1회씩 4주간 전문 상담사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유기성 기자 ygs@

100% 참자연그대로 Chan Shop
보리, 현미 쌀국수
참자연 그대로 쌀국수
밀가루 NO!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건강한 국수

※ 청원생명쌀로 만든 친환경 쌀국수
※ 청주시 학교급식 선정 제품!
※ 밀가루 0%, 100% 국산 곡물만 사용
※ HACCP 인증 시설 + 특허 받은 국수 제조 기술

※ 우리 아이 급식, 이왕이면 쌀로 만든 건강한 국수로!" 밀가루를 전혀 섞지 않고 국내산 곡물만으로 만든 쌀국수! 남는 쌀 소비 + 학생 건강까지 생각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학교 답례품, 선물용으로도 딱!
정성 담은 건강한 국수,
돌잔치,행사,감사 선물로도 인기!

납품,구매문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복로 836, 1층
대표 윤충근 ☎ 010-5485-4748

화순교육지원청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정기회의… 위기학생 조기발견·통합지원 협력체계 강화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은 지난 2일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장 안착과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화순군청, 화순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학생 조기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며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해했다. 화순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아울러 학습·정서·가정환경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통합지원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와 사각지대 최소화에 뜻을 모았다.

이지현 교육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은 속도와 연결”이라며 “위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화순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와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실효성 제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노영식 기자 2580news@daum.net

전남교육청, 지역산업 연계 ‘직업계고 재구조화’ 추진

학교·산업·지역 공생하는 ‘직업교육’으로 정주형 기술인재 양성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핵심으로, 정주형 기술인재 양성 중심의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취업·정주하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영암에서 열린 ‘2026 전남 직업교육 설명회’ 자리에서 학교·산업·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직업교육 체계를 핵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역전략산업 연계 직업계고 재구조화 ▲AI·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 교육과정 확대 ▲AI 특화 마이스터고 및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공동교육과정 및 실습 인프라 확대 ▲산학연계 기반 현장 맞춤형 교육 강화 등이다.

먼저, 전남의 산업 지형 변화에 맞춰 직업계고 체제를 재편한다. 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이차전지 등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을 반영해, 기존 학과 체계를 넘어 ‘AI+X’ 기반 융합형 구조로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권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학과 개편과 함께, AI·에너지·재생에너지·배터리 등 지역 전략산업 중심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산업체·지자체·학교 간 협력 기반의 현장 맞춤형 교육도 강화한다. 기업 현장실습, 캡스톤 프로젝트, 산업체 전문가 공동수업 등을 통해 실무형 기술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계고 선도모델 구축도 본격화한다. AI 산업을 이끌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AI 특화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과 함께, 지자체·기업과 연계한 협약형 특성화고를 확대해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인다. 기존 공동실습소를 개편하고, AI·에너지·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실습소를 신설해 교육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공동교육과정 참여 규모를 확대하고, 신기술 중심 교육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산업 수요 예측부터 학과 개편, 취·창업, 재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직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 자리에는 직업계고 교장, 특성화부장, 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

특히, ‘전남도 산업동향의 이해’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직업교육은 지역 미래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지역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남형 직업교육을 추진해 학교와 산업체, 지역사회가 공생하는 직업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무안영재교육원, 창의 인재 83명과 힘찬 새출발

2026학년도 개강식… 1년 동안 과학·수학·코딩 중심 탐구 수업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23일 오후 4시 무안영재교육원 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지도강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무안영재교육원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강식은 2026학년도 교육과정의 시작을 알리고 학생, 학부모, 지도 강사가 함께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안영재교육원은 올해 자연·발명·예술 분야에서 총 83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사 위촉장 수여와 입학허가 선언에 이어 연간 운영 계획과 주요 일정도 안내했다.

학생들은 1년 동안 과학·수학·코딩 중심의 탐구 수업과 발명 이론·실습, 예술 분야 실기 심화 교육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전남과학축전, 과학·예술·문화 체험학습, 여름방학 산출물 집중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무안영재교육원은 7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제 수업을 운영한다. 8월에는 초등학교 4·5학년을 위한 예비영재캠프를 열어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개강식에 참석한 한 학생은 “과학과 코딩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의 관심 분야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보훈 교육장은 “영재교육은 학생들이 지닌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성장의 힘을 키워가는 과정”이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배움 속에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양길 기자 2580news@daum.net

순천청암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코스프레 졸업사진’

교복 대신 개성 담은 의상 입고 촬영… 가장 ‘나다운’ 기록 완성

지난 3월 31 전남 순천청암고등학교 교정은 흐드러지게 핀 벚꽃과 학생들의 활기로 가득 찼다. 3학년 학생들은 교복 대신 저마다의 개성을 담은 의상을 입고 특별한 ‘코스프레 졸업사진’ 촬영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감성을 존중하고, 고교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마련됐다.

촬영 현장은 학생들의 빛나는 상상력이 돋보이는 축제 모델이었다. 유명 만화 속 주인공으로 변신한 학생들은 생동감 넘치는 포즈로 활력을 더했고,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오드리 햅번의 우아함과 화려한 드레스 차림은 교정의 벚꽃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학생들은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기보다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며 가장 ‘나다운’ 기록을 완성했다.

학생들의 상상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유명 영화나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으로 변신한 학생부터, 자신의 성격을 재치 있게 표현한 익살스러운 의상까지 등장하며 현장에서는 연신 웃음꽃이 피어났다.

과거의 딱딱하고 정형화된 포즈 대신, 학생들은 서로의 의상을 칭찬하고 함께 독특한 포즈를 구상하며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친구들과 함께 맞춘 ‘우정 코스튬’은 이들이 함께 보낸 3년이라는 시간의 깊이를 짐작게 했다.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 덕분에 학생들은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기보다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며 가장 ‘나다운’ 모습을 기록에 담았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촬영이 학생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즐거운 에너지가 되었길 바란다”며 제자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양만열 기자 2580news@daum.net

고사리손으로 일구는 ‘꼬마 농부’의 꿈

곡성 석곡초, 전남곡성미래교육재단 연계 생태 교육

전남 곡성 석곡초등학교(교장 김양현) 4월 2일 학교 한쪽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흙 내음으로 가득 찼다. 1~2교시를 활용해 전남곡성미래교육재단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와 함께 2026학년도 첫 ‘꿈틀꿈틀 텃밭 만들기’ 활동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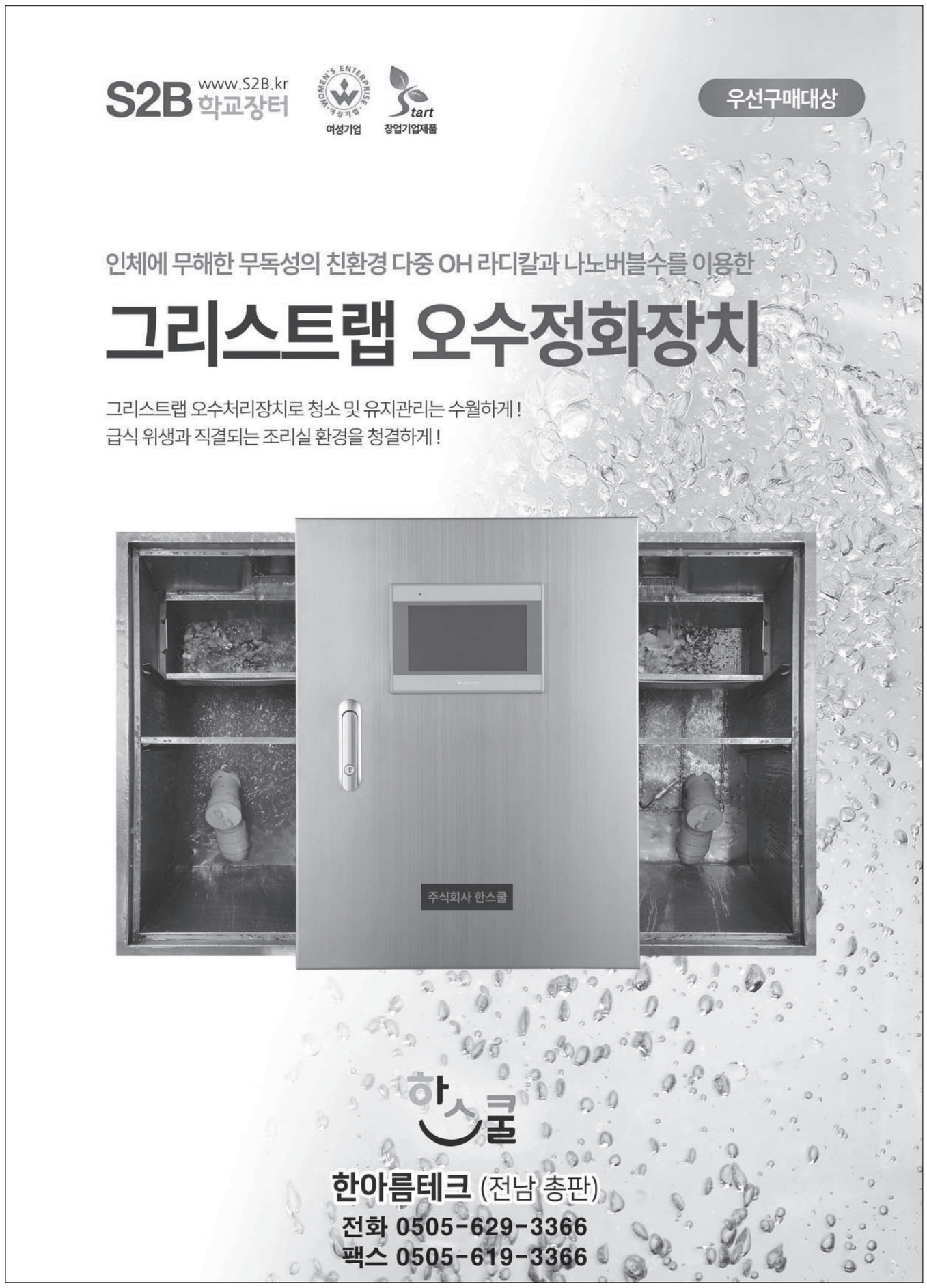
이번 활동은 생태 환경 교육의 일환으로, 석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생들과 1학년 학생 총 12명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미래교육재단에서 파견된 텃밭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직접 흙을 고르고 모종을 심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곡성미래교육재단은 이번 시작을 기점으로 월 1회 전문 강사를 파견해 학생들과 함께 체계적인 텃밭 관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가 방문하지 않는 기간에도 담임 교사와 학생들이 수시로 텃밭을 찾고 물을 주며 농작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는 등 꾸준한 생태 학습을 이어가게 된다.

작은 텃밭이지만 아이들이 직접 작물을 심고 기르는 과정은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끼고 정서적 안정을 얻는 귀중한 교육적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 1학년이 함께하는 통합활동을 통해 선후배 간의 유대감을 쌓는 기회도 마련됐다.

석곡초등학교는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자연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강채구 기자 2580news@daum.net



초등학교 학생평가 문항 교사가 직접 만든다

전북교육청, 교원 250여 명 대상 학생평가 문항개발 실행연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 교원들의 평가 문항 개발 및 문항 검토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3일과 4일 창조나래 시청각실과 전주교육대 교육문화관에서 초등 교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평가 문항개발 실행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문항개발과 검토를 실제로 수행하는 '실행 중심 연수'로, 도내 초등 교원들의 학생평가 문항개발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5차례 운영되는 연수는 △문항개발 이해 △성취기준 분석 및 문항개발 실습 △문항 검토 및 피드백 △현장 적용 결과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3일 1차 연수에서는 '문항개발의 이해와 실제'를 주제로 한 사례 중심의 강의가, 4일 2차 연수에서는 학년-교과 문항 유형별 성취기준 기반 문항개발 실습과 상호 검토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강사로는 학생평가 분야 권위자인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 김선 교수가 참여했다.

연수 참여 교원들은 이후 문항 지원단으로 연계해 성취기준 기반 평가문항 개발과 검토 활동을 수행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실행연수는 교사의 문항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연수를 통해 교원들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성취기준 기반 평가문항을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학교급식 공감·소통의 장' 두 번째 시간 진행

전북교육청, 학교 관리자 이해도 제고 및 역할과 책임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초등학교장 및 유치원장 28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급식 공감·소통의 장'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학교급식 공감·소통의 장' 두 번째 시간으로,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이해도 제고 및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부산 화정초등학교 정호윤 교장이 '학교장의 리더십이 학교급식의 질을 바꾼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학교급식을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경영의 관점에서 풀어냈다. 이어 전북교육청 2026년 학교급식 주요정책 안내하고, 학교급식 운영과정에서의 현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및 파업 시 대응 방안 △식생활관 환경개선 △학교급식 청렴성 확보를 위한 학교장의 역할과 시스템 구축 △유치원 급식 지원 △식생활교육 및 영양교육 활성화 △영양교사 배치 현황 등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정책 소통의 장이 됐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은 학교급식을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한 '교육급식'으로 보고, 저탄소 환경급식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영근 문예체건강과장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학생 학습권 수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13명 재구성

전북특별자치도육청은 학교 주변 개발사업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운영한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설립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 기구다.

특히 소음과 진동, 통학 안전, 일조권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업무 관련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건축·환경·안전·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학교 인근 개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서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 환경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학교 주변 공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교육환경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강화와 보호구역 관리체계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사후관리단 운영을 통해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미취학아동 취학관리 방안 모색

취학관리 전담기구 회의서 의무교육 단계 아동 취학 독려 방안 고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취학관리 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의무교육 단계 아동(만 6~18세)의 취학관리 방안과 미취학 아동의 취학 독려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타 시·도에서 초등학교 입학연기 아동의 취학 누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 기관간의 역할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회의 주요 내용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 관리 △기관간 취학관리 개선사항 공유 △교육청-학교-외부기관(읍·면·동, 경찰청 등) 협력 등이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에 각각 설치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는 교직원과 시·도자치단체 직원, 아동보호전문가들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의무교육 대상 아동이 적기에 취학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미취학 아동이 적기에 학교에 입학해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배움의 끈, 끝까지 잇는 전북교육 실현

전북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적기 개입 역량 강화를 통해학업중단 예방 안전망을 고도화한다.

전북교육청은 2~3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담당교사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등 총 7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 연수는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과 학교 현장의 실질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며, 이를 계기로 '예방 중심→조기 발견→즉각 개입'으로 이어지는 현장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정책 전달 중심 연수에서 벗어나 △학업중단 위기학생 상담 실제 △타 시도 우수 운영 사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전 과정(계획 수립부터 나이스 처리까지) 등과 같이 '현장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실무 중심 연수'로 운영했다.

또한 사례 공유와 질의응답을 강화해 학교 간 경험을 확산하고,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에도 위탁교육기관 운영, 대안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 체계를 구축해 왔다.

올해는 중·고등학교 60개교를 대상으로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을 통해 위기학생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업중단 예방 정책을 보다 촘촘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업중단 예방 정책은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현장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고,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유치원 교사연수회

교사 주도 연구 문화로 현장 중심 교육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의 자발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교육청은 2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6학년도 유치원 교사연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치원 교사연수회는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신장하는 사업으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자연사랑 환경사랑 △인성·인권교육 △5세 이음교육 △유아 책 놀이 △비대면 교육활동 △자유주제 7개 영역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한다.

도내 공·사립유치원 및 초등교사 5~15명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으며 심사를 통해 총 40팀을 선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사업은 종료 후 '교육학습공동체 운영의 날'과 활동 성과 공유를 통해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고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교사의 자발적 배움과 성장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며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고민을 나누는 연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모든 유아가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殷字·東夷·韓民族 이야기

갑골문 속에서 되살아난 우리 풍습의 그림자

어느 민족이든 과거를 돌아보면 낯익은 것과 낯선 것이 교차한다. 한민족의 오랜 생활 풍습 가운데도 그렇다. 상투, 옷깃, 무릎 꿇어 앉는 자세, 때로는 무덤 속 순장 풍습까지.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오늘까지 이어져온 걸까?

갑골문, 고분에서 나온 옥인형, 고구려 벽화, 고려와 조선의 기록들을 교차해 읽으며, 동이족과 한민족의 문화적 연속성을 추적해보면, "동이족과 현대 한국인이 완전히 동일하다 말할 순 없다. 그러나 풍습과 생활 속 흔적은 생각보다 많이 이어져 있다." 이는 단순한 민족주의의 외침이 아니라, 차근차근 증거를 꿰는 실증적 접근이다.

□ 왜 동이족을 다시 보아야 하는가

고조선, 부여, 고구려…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우리의 옛 나라들이다. 그러나 막상 들여다보면 기록은 신화와 전설로 덮여 있다. 삼국지의 몇 줄 기록이나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후대의 서술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헌이 부족하다면, 물증으로 보완해야 한다. 갑골문, 옥인형, 무덤 유물, 벽화, 고려도경 같은 외부인의 기록까지 모아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는 하나의 퍼즐 맞추기와 같다. 문헌만으론 모양이 안 나오던 그림이, 유물과 문자와 풍습을 함께 놓아보면 윤곽을 드러낸다.

[그림 23] 夫자의 형성과정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夫	夫	夫	夫

□ 상투와 옷깃, 생활 속의 흔적

첫 번째 사례는 상투다. 갑골문 가운데 '지아비 부자'(夫)라는 글자를 보면 머리 위로 머리를 틀어 올린 듯한 모습이 보인다. 상나라 옥인형에서도 같은 형상이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고구려 벽화 속 인물이나 신라 토우에도 상투가 그려져 있다. 진나라 병마용의 머리 모양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뚜렷하다. 진의 군사들은 속발, 즉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다. 이렇게 문자와 유물, 벽화가 한데 모이면, 상투라는 풍습이 단순한 '머리 모양'이 아니라 동방 세계의 문화적 표식이었음을 알게 된다.([그림 23] '夫' 참조)

옷깃 방향도 흥미롭다. 갑골문과 고구려 벽화 속 옷깃은 왼쪽으로 여민 '좌임'이다. 반면 한나라의 유물은 '우임'이 주류다. 왜 이렇게 달랐을까? 이는 활쏘기와 연관이 있다. 좌임은 활을 당길 때 화살이 옷깃에 걸리지 않도록 고안된 궁수 문화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스키타이 기마병들의 판금 갑옷도 좌임이었는데, 이 역시 활쏘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교가 확산되면서 좌임은 '오랑캐의 풍습'으로 낙인찍히고, 대륙의 표준인 우임으로 수렴된다. 풍습이 정치·이데올로기와 만나 변용된 것이다.

□ 무릎 꿇은 옥인형과 '여자(女)'

은허에서 나온 작은 옥인형은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이 자세는 단순한 예배 동작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일상 자세였다. 의자 대신 바닥에 앉아 생활하던 시대, 무릎 꿇기는 자연스러운 기본 자세였다.

이 인형은 곧 갑골문의 '女'와도 연결된다. 여자의 글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체를 구부린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것이다. 가슴이 강조된 듯한 선까지 남아 있다. 문자란 결국 생활의 기록이라는 말이 이보다 잘 맞는 경우도 드물다.

□ 앉는 풍속의 변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양반다리'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상·주·한 시대에는 바닥에 무릎을 꿇어 앉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당대 이후 서역에서 '호자'라 불린 의자가 전래되며 앉는 방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조선 시대에는 온돌의 보급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 따뜻한 바닥 덕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다리를 풀어 앉는 습관이 자리잡은 것이다. 일본은 다다미 문화 덕에 무릎 꿇어 앉는 풍습이 오래 지속되었으니, 생활기술과 환경이 사람의 몸짓을 바꾸는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 편두와 순장, 낯선 풍습의 그림자

편두(偏頭), 즉 납작한 머리 모양은 고대 기록마다 묘사가 엇갈린다. 어떤 사서는 부여와 고구려 사람들이 뒤통수를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적고, 또 어떤 기록은 그렇지 않다고 전한다. 후한서, 삼국지, 지증대사비… 자료는 제각각이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사실 확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자의 인식·편견에서 나온 문제로 본다. 건륭이 남긴 비판적 언급도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풍습이 어땠든, 후대의 눈으로 본 모습은 언제나 가감과 왜곡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순장 풍습은 더욱 극적이다. 상나라 무덤에서는 순장의 흔적이 확연하다. 『삼국지』에도 부여에서 순장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고구려 벽화에도 피장자 곁을 지키는 듯한 인물상이 보인다. 신라의 지증왕은 공식적으로 순장을 금지했고, 고려 시대에 이르면 법으로 철저히 막는다. 그러나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실제 순장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풍습은 권력과 사회구조의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사라진다.

□ 왜 바뀌었을까?

풍습의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는 교류다. 스키타이, 페르시아, 몽골과의 만남이 머리 모양, 옷차림, 무기 체계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는 사상이다. 유교의 확산은 옷깃 하나까지도 '문명 vs 오랑캐'라는 틀로 재해석했다. 셋째는 생활기술이다. 의자와 온돌 같은 작은 발명품이 사람들의 몸짓과 풍습을 완전히 바꿨다. 넷째는 정치다. 순장 금지 같은 국가적 법령이 사회 풍습을 강제로 바꿔놓았다.

□ 연속성과 단절의 기억

그렇다고 해서 동이족과 현대 한국인을 단순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교류와 전쟁, 제국의 흥망이 있었다. 그러나 상투, 좌임, 무릎 꿇기, 편두, 순장 같은 풍습이 문자와 유물, 벽화, 기록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연속된 흐름을 보여준다.

문화는 시간의 겹을 통과하며 남고, 사라지고, 또 변형된다. 갑골문과 유물은 그 겹 사이에 박힌 단서들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꿰어내어, 한 민족의 옷자락을 다시 펼쳐보는 것이다.

□ 오늘의 함의

흔히 역사는 먼 과거의 일이어서 우리와 무관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상투를 틀던 손길, 옷깃을 여미던 습관, 무릎 꿇어앉던 자세, 그리고 순장에 담긴 사회 질서까지……. 모두가 오늘 우리의 몸과 의식 속에 길게 드리워져 있다.

민족 정체성이란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활 속에 스며든 몸짓과 관습, 그 변형과 지속 속에서 형성된다. 우리가 흰옷을 고집하듯, 상투나 옷깃, 앉는 방식 하나에도 수천 년의 이야기가 겹겹이 배어 있다.

결국 역사를 본다는 것은, 우리 안의 오래된 몸짓을 발견하는 일이다. 동이족을 다시 보는 것은, 그 속에서 현재 우리를 다시 만나는 길이기도 하다.

▣ 육우균
◇ 교육연합신문 주필

전재학의 교육칼럼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교육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가야 할 길

한국 교육은 과거에 국제사회에서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되어 왔다.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재임 중에 "한국 교육을 보라"며 높은 교육열을 부러워하며 한국 교사들을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한국은 3년마다 실시되는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강세를 보이며 세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 학생들의 노력,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어우러져 만든 성과다. 그러나 세계가 한국 교육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은 우려도 깊다. 이 글에서는 우리 교육의 양면적 평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 나아갈 길을 제언하고자 한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보다 높은 학업 성취도다. 성실성과 근면함, 목표를 향한 집중력은 한국 학생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힌다.

또한 전자 교과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등 ICT 기반의 교육 환경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커리큘럼, 우수한 교원 역량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높은 성취'의 이면에는 입시 위주의 과도한 경쟁이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우리 교육의 단골 비판 메뉴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과도한 경쟁 구조 속에서 학생들은 정답 맞추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시험 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은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성을 키우기 어렵게 만든다. 세계 언론은 이를 "점수는 높지만 창의성은 낮은 교육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 교육의 또 다른 그림자는 사교육이다. 이는 역으로 공교육의 불신과 퇴보를 의미한다. 수능과 내신에 대한 부담은 학부모를 사교육 시장으로 이끈다. 이로써 가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출발선이 다른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하며, 그 평등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오늘날 세계는 4차 산업혁명과 최첨단 디지털,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창의성과 융합형 인재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정해진 답보다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이제는 점수 중심의 지능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잠재력을 끌어내며 건전한 비판과 창의적 판단을 끌어낼 수 있는 지성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협력과 탐구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 가지 비판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한국 교육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제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조율하고 개선하느냐가 중요하다. '좋은 성적'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한때 공부의 신이라 불리던 한국 교육의 엘리트들이 사회와 공직에 진출해 '공부 머리'와 '일 머리'가 부조화를 이루어 무능의 대명사로 낙인찍히는 것을 최근 우리는 목격한 바 있다. 이는 우리 교육이 양성한 최고 엘리트들의 한계로 우리 교육의 성찰을 필요로 한다.

이제 우리 교육은 무엇보다 학생이 행복하게 배움에 열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부산 여고생 3명의 집단 자살처럼 우리의 청소년들은 세계적으로 연 10년째를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과도한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와 경쟁 교육에 대한 불안과 우울증이 겹쳐 발생하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사회가 교육을 신뢰하는 환경이 바로 진정한 교육 강국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1등 공신이라는 성취에 아직도 도취해 있기보다는 세계의 석학들과 교육 전문가들의 진정 어린 변화의 충고에 귀를 열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멀다(We have so many miles to go before we sleep)"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구 한 구절을 가슴 깊숙이 품고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 믿는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최윤용의 100세 칼럼

스마트폰 시대의 굽은 목, 만성 목 통증을 해결하는 추나요법의 과학

스마트폰과 PC 앞에서 현대인이 보내는 긴 시간은, 만성 목 통증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돌아옵니다.

2025년 출간된 최신 해외 임상진료지침에서는, 성인의 절반 가까이가 매년 한 차례 이상 목 통증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비특이성 목 통증(Nonspecific chronic neck pain)'은 뚜렷한 해부학적 병변이나 외상이 없음에도 통증과 뻣뻣함이 지속되는 별도의 질환 범주로 분류됩니다.

유럽 통증 저널(European Journal of Pain, 2025)에 게재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목 통증의 강도가 높거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동반될 경우, 단순 근육통을 넘어 지속적이고 재발하는 장애로 고착화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 누적과 수면 장애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물론 직장인의 업무 효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며, 나아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목 통증이 만성화되기 전에 구조적·장기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 근골격계 균형을 회복하는 한의 수기치료, 추나요법

만성적으로 굳어진 목 관절과 근육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의학적 방법으로 '추나요법'이 있습니다. 국제 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2014)에 소개된 바와 같이,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과 신체 일부 또는 추나 테이블과 같은 보조 기구를 활용해 척추·관절·근육·인대의 비정상적인 틀어짐을 교정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대표적 한의학 수기치료입니다.2019년 추나요법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그 활용도는 급증했습니다.

최근 국제 학술지 BMJ Open(2025)의 대규모 청구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보험 적용 이후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의 추나요법 이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활용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중이 체감하는 추나요법의 임상적 효용성과 안전성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 현대적 과학연구를 통해 입증된 추나요법의 치료 효과와 경제성

추나요법의 효과는 경험적 차원을 넘어, 엄격하게 설계된 현대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저명 학술지에 그 효용이 객관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 일반 치료 대비 우월한 통증 감소 효과입니다. 저명 의학 저널 JAMA Network Open(2021)에 발표된 다기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은 만성 목 통증 환자에게 5주간 추나요법을 시행한 결과, 진통제와 물리치료 중심의 일반 치료군보다 목 통증과 기능 장애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 목 통증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26)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어, 추나치료가 급성 및 만성 통증 모두에서 유용한 치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비용-효용성입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환자가 병원을 찾는 횟수와 결근율이 감소합니다. 국제 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에 실린 2022년 비용-효용 연구에서는 추나요법이 일반 치료에 비해 초기 치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환자의 삶의 질 향상(QALY)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치료 대안임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최신 뇌 영상(fMRI)을 통한 통증 억제 기전의 규명입니다. 단순히 굳은 근육을 푸는 것을 넘어, Frontiers in Neurology에 2024년 발표된 휴식 상태 fMRI 연구는 추나치료가 통증성 경추증 환자의 대뇌에서 통증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특정 뇌 영역의 비정상적인 활성도를 정상화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추나요법이 뇌 신경망의 가소성(plasticity)을 조절하여 만성 통증의 악순환을 중추신경계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일상에서 실천하는 바른 목 건강 관리와 융합적 접근

한의사의 전문적인 교정 치료와 더불어 환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생활 관리가 병행될 때 목 통증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JAMA Network Open (2022)의 최신 연구는 수기치료 단독 시행보다 근력 강화와 스트레칭이 결합된 적절한 운동요법을 병행했을 때 통증 감소와 목 기능 회복이 훨씬 극대화됨을 보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목을 길게 빼고 모니터를 응시하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귀와 어깨의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턱을 가볍게 당긴 자세를 유지하고, 매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꾸준한 스트레칭과 규칙적 휴식에도 불구하고 목과 어깨에 해소되지 않는 통증이 몇 주 또는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지체 없이 전문적인 한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추나요법을 통해 목의 균형을 회복하고 만성 통증을 해소하여 건강한 학습과 업무 환경으로 빠르게 복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 최윤용
◇ 큰나무한의원 대표원장
◇ (주)으뜸생약 대표이사

학교 교육용 가구 전문 생산업체 월드퍼니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품질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ONLY WORLD BENEFIT

BENEFIT 01
연계고용담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

BENEFIT 02
총액 계약
조달청과 수의시담 하여 계약을 체결

BENEFIT 03
수의 계약
금액에 상관없는 수의계약 가능

주식회사 월드퍼니처 | 1588-3886 | 부산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23